



世宗特別自治市議會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Council

-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
공 무 국 외 활 동 결 과 보 고 서

2017. 7. 1.(토) ~ 7. 7.(금)
인 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개요

1. 출 장 국 : 인도 (뉴델리, 자이푸르, 바랏푸르, 아그라)

2. 활동목적 :

-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자족기능 확충 등 다각적인 우리시 발전방안 모색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으나 인도는 지속적 고성장(연평균 7.5%) 추세로 2020년 세계 5위 경제대국 전망

※ 세계 최대 IT 강국으로, 총수출부문의 45%, 약 1,000만명 IT 노동력 보유

인도의 자치단체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3. 활동기간 : 2017. 7. 1(토) ~ 7. 7(금), 5박 7일

4. 보고서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

5. 활동자 인적사항 : 총 13명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장승엽, 김원식,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고준일	
의회사무처	정희상, 박건선, 남지현, 한희정, 이정희, 견승엽	

|| 목 차 ||

I . 연수 개요	1
II . 사전 준비 사항	3
III . 방문국(인도) 현황	4
IV . 공무국외활동 현황	25
① 자이푸르 시청	25
② 라자스탄 주 관광청	34
③ 바랏푸르 시청	42
④ Ti Infotech (IT 회사)	52
⑤ 한국문화원	61
⑥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71
⑦ 인도의 관광 자원	85
V . 공무국외활동 결과	89

-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 2017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

I 연수 목적 및 개요

① 목적

- 올해는 행복도시 착공 10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자족기능 확충 등 다각적인 우리시 발전방향 모색 필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는 장기화되고 있으나 인도는 지속적 고성장(연평균 7.5%) 추세로 2020년 세계 5위 경제대국 전망
 - ※ 세계 최대 IT 강국으로, 총수출부문의 45%, 약 1,000만명 IT 노동력 보유

인도의 자치단체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경제 및 산업관련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② 개요

- (기 간) 2017. 7. 1(토) ~ 7. 7(금) << 5박7일 >>
- (행 선 국) 인도(뉴델리, 자이푸르, 바랏푸르, 아그라)
- (활 동 자) 13명
 - 의원 7, 직원 6(전문위원실 4, 비서실 1, 입법주무관 1)

구 분	성 명
의 원	안찬영, 고준일, 장승업, 김원식,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직 원	정희상, 박건선, 남지현, 한희정, 이정희, 견승엽

- (활동내용) 경제, 도시개발, 관광 및 농업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등

③ 세부일정

월 일 (요일)	방문지	방문기관	수 행 내 용	비 고
7.1. (토)	인천공항 출발		- 출발 : 20:40 (비행시간 7시간 50분, 시차 3시간 30분)	비행기
7.2. (일)	뉴델리	· 마하트마 간디 기념관 및 화장터	- 공식방문 사절단이 참배하는 간디 분양소 방문	차량 이동
		· 라즈파트	- 정부 및 국회의 구성 및 정치 구도 파악 ☞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등	
7.3. (월)	자이푸르	· 계획도시 현장	- 1700년대 계획도시 추진배경 청취 및 현장 학습	차량 이동
		· 자이푸르 시청	- 신도시 개발과정 청취 및 간담회	
		· 라자스탄 주 관광청	- 인도 최고 관광지로의 성장과정 청취 및 간담회	
		· 힌두사원	- 인도 전통 건축양식의 이해	
7.4. (화)	바랏푸르	· 바랏푸르 시청	- 인도 농업 중심 소도시의 현황 파악	차량 이동
	파테푸르 시크리	· 계획도시 현장	- 계획도시의 추진과 발전과정 현장 학습	
7.5. (수)	아그라	· 타지마할	- 인도 최고의 관광문화 유산 관리 실태 확인	차량 이동
		· 아그라성		
7.6. (목)	뉴델리	· IT회사 (TI infotech)	- 현대 인도 경제의 주축인 IT업체 성장 요인 및 인재채용·육성 관련 간담회	차량 이동
		· 한국문화원	- 한국인도간 문화교류 내용 청취 및 간담회	
		· KOTRA 뉴델리무역관	- 인도의 초고속 경제성장 요인 및 국내 대 기업 성공적 정착 사례 청취 및 간담회	
7.7. (금)	인 천		- 도착 : 13:10	비행기

II

사전 준비 사항

일 자	주 요 내 용	주 관
	↓	
2017.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국외활동 계획 수립 - 목 적 : 경제 및 산업관련 벤치마킹 - 대상국 : 인도 - 기 관 : 자이푸르 시청 등 6개 기관 	산업건설 위 원 회
	↓	
2017. 4~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기관 섭외 요청 및 섭외 완료 - 자이푸르 시청, 라자스탄주 관광청, 바랏푸르 시청, IT회사(Ti infotech), 인도 한국문화원,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산업건설 위 원 회
	↓	
2017.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서 작성 및 사전 전달 	산업건설 위 원 회 (정책기획관 협조)
	↓	
2017.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국외활동 준비 - 명함 제작(영어) - 방문 기념품 구입(홍삼, 부채, 스카프) - 세종시의회 홍보 책자(한국어, 영어) - 세종시 홍보 책자(한국어, 영어) - 공무국외활동 심의회 허가 의결 	산업건설 위 원 회 (의정담당관실 및 대변인실 협조)

Ⅲ

방문국(인도) 현황

□ 인도 국기



인도의 국기는 1947년 7월 22일에 제정되었다. 주황색은 용기와 헌신을, 하얀색은 진리와 평화를, 초록색은 믿음과 번영을 의미하며, 가운데에는 24개의 축을 가진 파란색 법륜이 있고 마우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소카의 사자상에 새겨져 있는 법륜에서 유래되었다.

□ 방문지역



□ 일반현황

국명	인도(Republic of India)
위치	서남아시아(동경 68.7~97.25도, 북위 8.4~37.6도)
면적	328만 7,260km ² (한반도의 15배, 남한 면적의 33배)
기후	열대 몬순, 온대 기후, 고산 기후(북부) 등 다양
수도	뉴델리(New Delhi)
인구	13억 2,972만명(World Meter, 2016년)
주요 도시	NewDelhi(1,868만명), Mumbai(2,153만명), Kolkata(501만명), Chennai(981만명), Bangalore(1,157만명) 등
민족	인도 아리안족(72%), 드라비다족(25%), 몽골족 및 기타(3%)
언어	힌디어, 영어 외 21개의 공용어
종교	힌두교(80.5%), 회교(13.4%), 기독교(2.3%), 시크교(1.9%), 불교(0.8%), 자이나교(0.4%)
건국일	1947년 8월 15일(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수반	<p>국가원수(대통령) : 람 나트 코빈트(Ram Nath Kovind)</p> <p>- 취임일: 2017년 7월 25일(5년 임기)</p> <p>총리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p> <p>- 취임일: 2014년 5월 26일(5년 임기)</p> <p>- 소속 정당: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p>

□ 경제지표

GDP	2조 2,887억 달러(2016년, IMF)
실질경제성장률	7.0%(2016년)
1인당 GDP	1,747달러(2016년, IMF)
실업률	4.9%(2016년, Trading Economics)
소비자 물가상승률	3.17%(2017년 1월, 인도통계청)
화폐 단위	Rupee, Paise
환율	US\$ 1 = 67 Rupee(2017년 2월 9일 기준, 인도 중앙은행)
외채	4,856억 달러(2016년 3월, 인도 재무부)
외환보유고	3,627억 달러(2017년 2월, 인도 중앙은행)
산업구조	서비스업(52.98%), 건설업(8.04%), 유틸리티(2.41%), 제조업(17.18%), 광업(2.39%), 농업(17.00%) (2014-2015년, 인도 통계청)
교역규모	2016년: (수출) 2,640억 달러, (수입) 3,595억 달러 2015년: (수출) 2,679억 달러, (수입) 3,941억 달러 2014년: (수출) 3,217억 달러, (수입) 4,614억 달러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품(2016년 1-9월, GTA) : 귀금속(16.81%), 광물성 연료(10.74%), 일반차량(5.61%), 기계류(5.18%), 의약품(4.94%), 유기화학물(4.34%), 의류(3.59%) 등 - 주요 수입품(2016년 1-9월, GTA) : 광물성 연료(24.64%), 귀금속(12.66%), 전자기기(10.36%), 기계류(9.43%), 유기화학물(4.25%), 플라스틱(3.28%), 동식물성유지(2.98%) 등

□ 경제동향

- (GDP) 2014년 부터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중국의 성장률 추월
 - 2015년 7.6%의 GDP 성장을 달성하며 16년만에 중국의 성장률(6.9%)을 추월하였음. 이는 신흥국 경제성장 평균치(4.0%)의 2배에 가까움.
 - Mckinsey(2016)는 인도가 2016~2020년간 연평균 7.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중국(6.4%), 러시아(2.3%), 브라질(2.2%) 등 기타 신흥국보다 높은 수치임.
- (소비자물가) 국제유가의 하락안정세로 안정된 소비자 물가 시현
 - 2010년대 초반 10% 전후를 나타냈었던 인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부터 4~6%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교역) 세계 경기침체로 무역규모 축소, 수출정책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속 감소
 - 제조업 기반이 약한 인도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거대한 원유수요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음
 - 2016년 무역액은 전년대비 5.81%로 감소하였으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1.46%, 8.77% 감소하였음
- (외국인투자)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 실시

-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제조업 진흥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2015~16년 회계연도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은 400억 달러이며, 전년대비 29% 증가하였음
- (환율) 타 신흥국 대비 외환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유지
- 2011년까지 달러당 45루피 수준의 루피화 가치는 점차 하락하여 2014년부터 달러당 60~68루피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경제전망

- 글로벌 경제 침체기 속 고성장 유망국가로 부상
- BRICS 국가 중에서도 돋보이는 경제성장
 - 인도경제는 1998년~2007년 기간 동안 BRICS 국가 중에서 중국 (9.9%)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7.1%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중국 이후 세계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
 - IMF, EIU 등 유력 경제분석 기관들은 인도가 2020년까지 연평균 7%의 성장을 지속하며,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
-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대 미래시장
- (노동시장) 2030년 세계 노동인구의 20% 이상이 인도에 집중
 - 인도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 2015년 현재,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8억 5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66.2%에 해당됨.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10억명인데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2030년 중국을 추월하여 2035년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소비시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처분 소득으로 거대 소비시장 형성
 - 2015년말 기준 인도의 1인당 명목 GDP는 1,617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의 가처분 소득증가로 소비 규모가 커지고 있음. 보스턴 컨설팅 그룹(2015)에 따르면 2020년 인도 소비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세계 인도인 네트워크 및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생산거점
-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 보유, 인도기업 전세계에서 활약 중
 - UN(2016)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1,5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남아시아, 아세안 및 아프리카 판로개척의 교두보로 활용
 - 인도는 인도양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주요 요충지로 기능하였음. 또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부탄을 포괄하는 남인도 국가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 패권국이기도 함.

□ 인도 노동시장의 현황 및 특징

- 인도의 인력 시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가 도시 인력으로 전체 인력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는 일반적인 공식 루트를 통한 인력으로 8%를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 32%를 차지하고 있는 세 번째는 비공식 루트 및 시골 지역의 인력 시장임.
- 특히 인도 대도시에서 가장 큰 인력 수요를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직장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델리, 뭄바이, 첸나이 세 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인력 수요가 나타나고 있음.
- 인도 인력들은 IT 분야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동 분야는 기타 분야들에 비해 연봉도 높은데, 인도의 IT, 엔지니어링 분야에 속해 있는 인력들은 모두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기에 해외에서의 사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에도 익숙하여 해외 기업들도 인도 인력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인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IT, 헬스케어, 숙박업 관련 분야가 주도하였는데 이러한 노동 시장의 흐름은 인도 시장의 현재 흐름과도 연관성이 많음. 이 외 인력 시장에서 전망이 높은 분야로는 식료품, 섬유, 목재, 화학, 고무 등이며 최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높은 인력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인도 인력 채용 시 유의사항
 - 인도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력 채용 시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들이 있음. 인도 인력 관리는 문화적 차이, 종교, 성향, 임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 진출기업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임.

- 급여 및 인센티브

- 인도 인력들이 회사에서 가장 좋아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으로는 같은 직장의 다른 동료들에 비해 자신이 높은 급여 또는 인상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로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들 간에 급여 문제에 있어 경계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음. 급여 문제는 누구나 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력들이 기업에서 일하는 원동력 중 하나이기에 인센티브, 보험 등과 같은 부분은 계약 시 명확하게 명기하여 확실히 하여야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잦은 이직률

- 인도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인력 관리 부분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부분은 인도 인력들의 잦은 이직임. 이직에 있어 한국 기업들과 인도 기업들 간의 인식 차이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인력들이 직장을 구할 때 기업의 브랜드 가치, 개인 능력 개발의 가능성, 경력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한국과 비슷하나 인도 인력들은 직장을 구할 때 자신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비중을 더욱 높게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1~2년 짧게 직장을 다니고 옮긴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으며 기업에서도 이러한 인재들을 능력이 있어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기업으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인도 인력이 이직을 할 때는 급여, 조건, 업무 환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타 직장으로 몸값을 높여 움직일 수 있는 자신의 급여가 가장 높이 올랐을 때 이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높은 임금 상승률과 경력직 인력의 연봉

- 인도는 인구가 많아 해외 기업들은 보통 인도 인력의 인건비가 타 국가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대졸 신입자, 생산직, 단순 노무직 등의 인력들의 인건비는 확실히 저렴함.
- 그러나 경력자, 고위직 인력의 연봉은 해외 기업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직 사원이나 과장급 이상 되는 사원의 연봉은 대졸 신입자에 비해 보통 2~3배, 많게는 약 5~6배 정도까지 차이가 남.
- 인도에서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은 보통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경력자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며 실제로도 경력자의 채용률이 가장 높으나 높은 비용과 잦은 이직률로 인해 최근 인도의 인력 시장은 갓 대학을 졸업한 인력을 뽑아 여러 부서에서 일을 시켜보고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하여 키워서 쓰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현지 경력자를 채용할 때 인도 인력들의 몸값 올리기를 조심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도 인력이 현재 자기가 받고 있는 연봉이 30만 루피라고 하였을 때 이직을 원하는 기업에 50만-60만 루피를 받고 있다고 속여 자신의 몸값을 크게 올리고 기업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참고] 인도,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¹⁾

- 하버드대학, 인도를 향후 10년간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으로 전망
-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 생산 역량 축적이 성장 원인

○ 경제 성장에 대한 하버드대학 연구

- 그동안 경제 성장에 관한 경제이론 및 측정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의 세부요소를 결합해 측정하는 소위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에 기반을 두었음. 과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이 '아시아 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 s Miracle)'라는 논문을 발표해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견한 것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회계를 분석한 결과임.
- 당시 폴 크루그만은 한국을 포함한 소위 아시아의 급성장하는 국가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보다는 노동, 자본 등의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을 촉진했는데, 이런 방식은 새로운 것도 없고 결국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는 논리였음.
- 성장회계는 여전히 한 국가의 경제성장에 관한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최근 하버드대학의 국제개발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에서 차용하는 경제복잡성지수(Economic Complexity Index)는 개별국가의 경제성장을 또 다른 차원에서 분석하고 예견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경제복잡성지수는 하버드대 경제학자 리카르도 하우스만(Ricardo Hausmann)과 MIT 물리학자 세자르 히달고(Cesar Hidalgo)가 2009년 발표한 논문 '경제 복잡성의 빌딩 블록(The building blocks of economic complexity)'에 기반을 두고 있음.

1) 자료인용: 하버드대학 국제개발센터(CID), Livemint, KOTRA 콜카타 무역관 자체조사 자료

- 이들에 의하면 한 나라의 경제는 우편 서비스부터 나사의 대량 생산까지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만약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국가는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요체임. 각각의 기술은 레고 블록에 비유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더 많은 레고 블록을 가지고 있다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것임.
- 개별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복잡성과 다양성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리해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통계를 활용하고 있음. 수출통계를 활용하는 논리는 부유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제조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난한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제품을 수출한다는 것임. 예를 들어, 경제복잡성지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자동차·기계·전기기기 등이 주요 수출품목인데 반해 등수가 바닥권인 가나의 경우 원유·금·코코아 등이 주요 수출품임.
- 이러한 경제복잡성모델이 성장회계모델과 다른 점은 후자는 경제성장의 세부 요소를 쪼개어 각 요소의 투입을 분석해 전체 경제성장을 산출하는 반면, 전자는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보다는 그 결과물(수출)을 가지고 개별국가의 성장능력을 평가하는 것임.
-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각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들 수 있음. 인도의 경우 2차대전 이후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중국과 경제규모, 성장률 등 여러모로 유사성이 많았음. 중국이 1970년대 후반 경제개혁을 단행한 데 반해 인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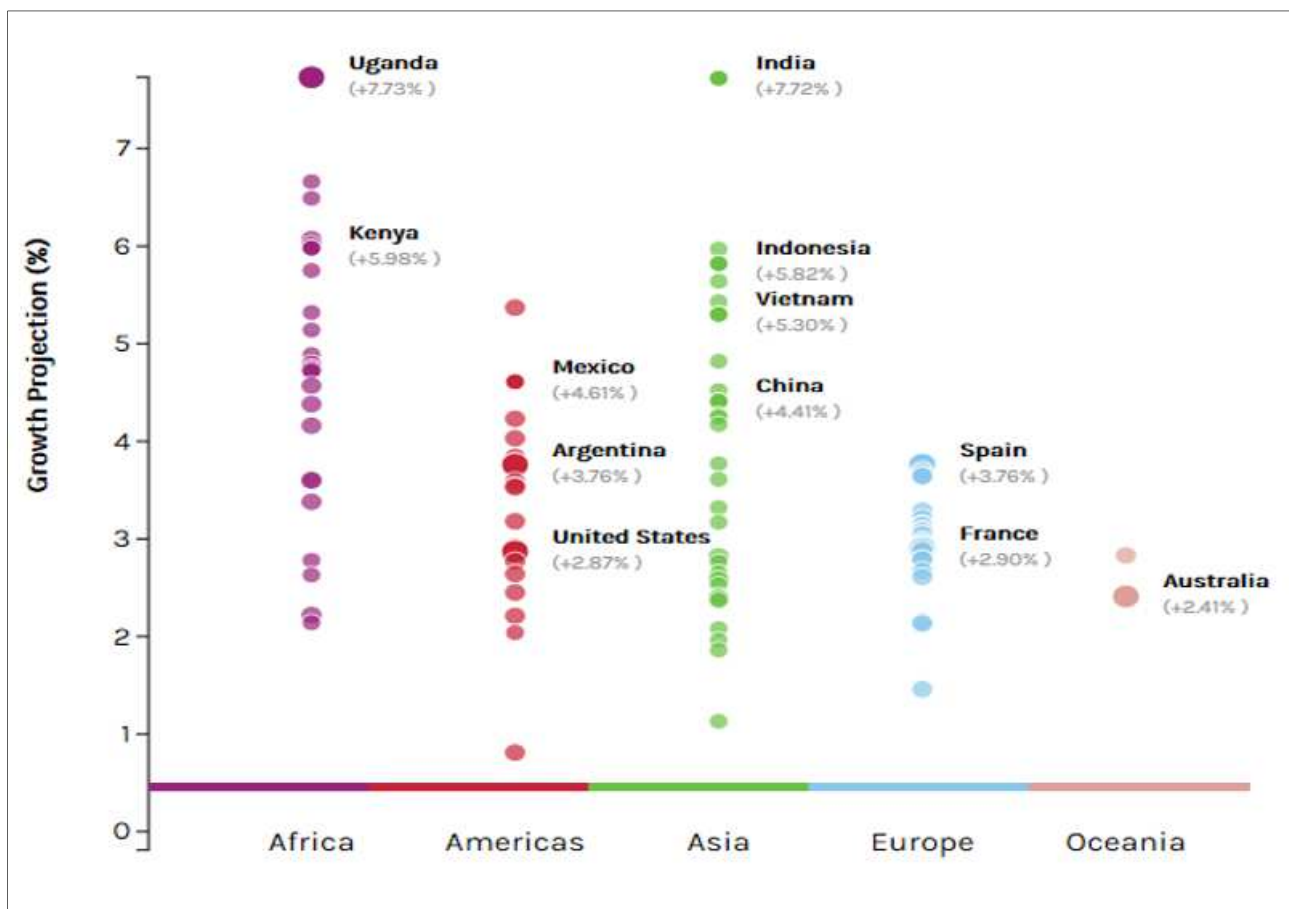
1990년대 초반까지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고수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해 중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됐음. 경제복잡성모델이 이러한 개별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표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의 경우 향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제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경제복잡성모델은 기존의 방식보다 경제성장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음. 한 국가경제가 복잡성과 다양성이 클수록, 그리고 경제 복잡성과 현재까지 부의 축적 간격이 클수록 향후 더 빨리 성장한다는 것임.

○ 인도, 세계 경제의 빛나는 별

- 지난 수년 동안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지고 있는데, 하버드대 국제개발센터(CID)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상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함.
- CID에서는 2015년까지의 글로벌 무역통계를 분석한 후 2009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세계무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원유가격의 하락 때문임.
- 그동안 산유국은 높은 원유가격으로 기대 이상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했으나, 제품의 다변화 복잡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원유 수출에만 지속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이제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정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들은 새로운 제품생산의 다양성·복잡성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예견할 수 있었음.

- 특히 전 세계 국가 중 인도, 우간다가 2025년까지 연평균 7.7%의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우간다를 포함한 동부 아프리카의 고도성장 국가의 경우 인구의 급속성장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만약 1인당 경제성장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우간다의 예상 연평균 경제성장은 4.5%로서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님.
- 인도는 우간다와 달리 인구 성장보다는 새로운 분야로의 다변화로 인한 고도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인도의 수출은 화학, 자동차, 전자 등 보다 더 복잡한 제품 분야로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의 경우 지난 수년간의 고도성장으로 경제의 복잡성과 축적한 부의 간격이 좁아져 성장의 속도가 더뎠고 향후 10년간 4.4%의 비교적 낮은 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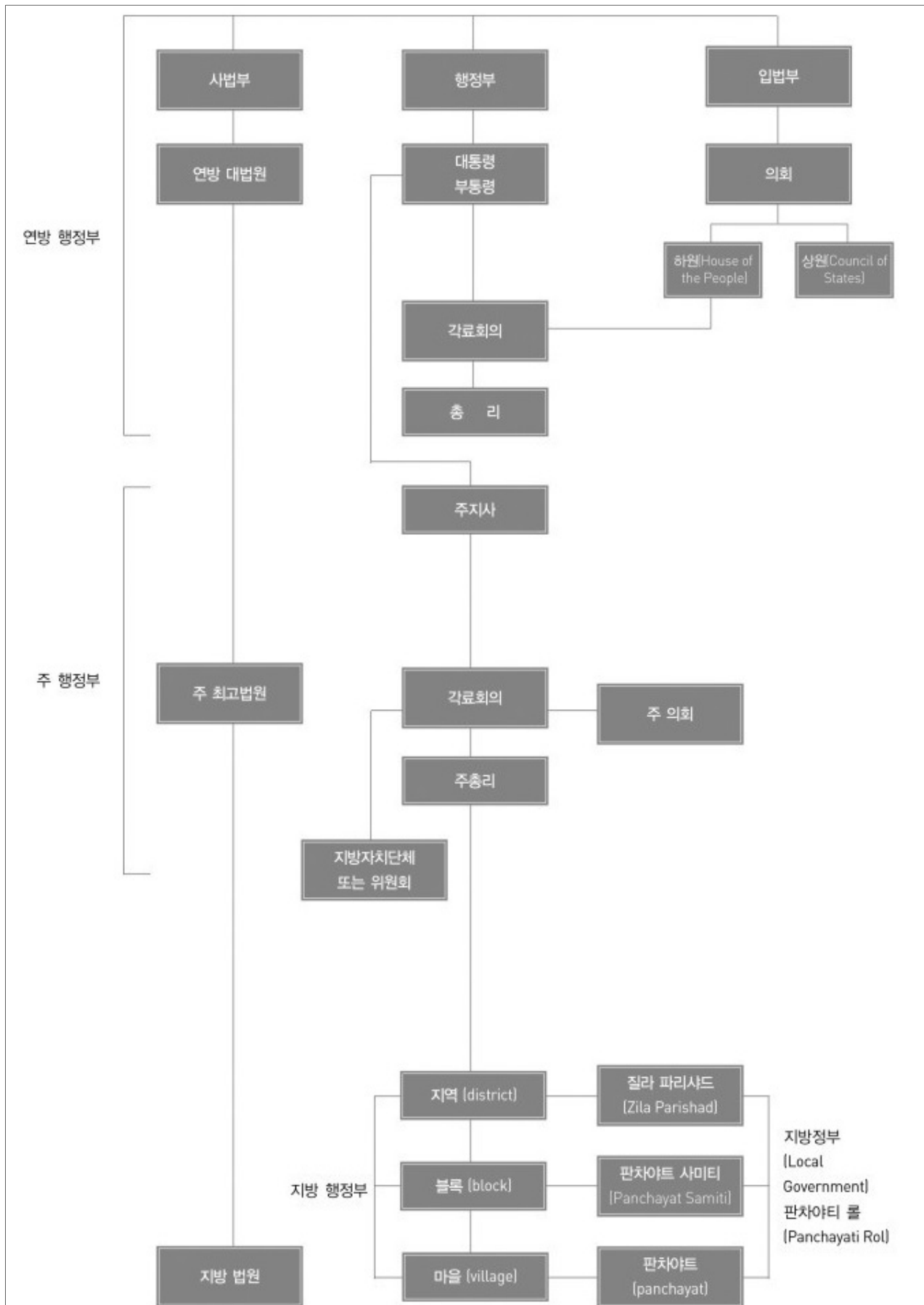
▲ 경제복잡성 글로벌 성장 전망

자료원: Harvard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전망

- 하버드대학 국제개발센터(CID)에서 각 국가 경제의 복잡성을 근거로 산출한 지표는 향후 각 국가의 경제성장을 예측하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최근 CID에서 발표한 경제복잡성지표(Economic Complexity Index, ECI)에 따르면 수출제품군의 평균적인 복잡성을 측정한 결과 일본, 스위스, 독일, 한국, 호주 등이 가장 복잡성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음. 또한 상위 40국가 중 순위가 최근 급상승한 국가들은 필리핀, 태국, 중국, 리투아니아, 한국 등이며, 반대로 순위가 하락한 국가들은 캐나다, 세르비아, 벨라루스, 스페인, 프랑스 등임.
- 전체적으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한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적 격변을 겪은 국가들로 쿠바,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타지키스탄, 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임. 또한 전체적으로 순위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국가들은 필리핀, 말라위, 우간다, 베트남, 캄보디아임.
- 성장 전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통된 체제적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임. 인도, 터키, 인도네시아, 우간다, 불가리아 등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국가들은 정치, 제도, 지리적 위치, 인구구조 등의 조건이 서로 상이함. 그럼에도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인력 역량의 확대와 새롭고 복잡한 제품의 제조로 다변화 한다는 점임.
- 향후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할 때 각 국가를 세 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첫 번째 부류는 연관 분야 제품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한정돼 있는 국가로 방글라데시, 에콰도르, 기니 등임. 두 번째 부류는 다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로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등임. 세 번째 부류는 이미 존재하는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일본, 독일, 미국 등이 있음.

□ 인도의 정부 조직 현황



○ 국가 형태 : 연방공화국(29개 주와 7개의 연방 자치령)

○ 인도의 연방행정부

- 대통령 : 대통령은 5년 임기로 상·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국가원수로서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리고 군 최고통수권을 보유함.
- 부통령 : 부통령은 상하 양원 의원만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 선출되며, 상원의장을 겸하고 있음.
- 총리 :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총리 추천권을 가지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리는 연방정부의 행정 실권을 행사함.
- 각료회의 : 연방각료 및 국무장관으로 구성되며 각료회의는 하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갖으며, 의장직은 총리가 수임함.
- 대통령과 총리



대통령(The President)

람 나트 코빈트(Ram Nath Kovind)

상, 하 양원 및 주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들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한다 . 대통령은 재임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가진다



총리(The Prime Minister)

나렌드라 모디(Shri Narendra Modi)

수상은 인도 연합(연방) 정부의 수장이다 . 수상은 매일의 연합(연방) 정부의 일을 관장하며 각료회의의 도움을 받는다 . 헌법상의 권리는 각료회의를 대표하는 수상에 의해 행사되며 , 수상은 선출된 의회에 책임을 진다 . 하원 (Lok Sabha) 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자가 대통령에 의해 수상으로 임명된다 . 대통령은 수상의 건의 하에 다른 장관들을 임명한다.

○ 인도의 입법부

- 상원 : 인도 국회의 상원을 라자 사바(Rajya Sabha)라고 함. 상원은 각 주와 연방직할지 의회에서 선출되는 238명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매 2년마다 1/3씩 새로 선출함. 상원은 예산 관계 법안을 제외하고는 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음. 그러나 각 주의 정당 세력에 따라 간접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음.
- 하원 : 인도 국회의 하원을 로크 사바(lok sabha)라고 함. 하원은 각 주 및 연방직할지 대표 543명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도인과 영국인의 혼혈 집단(Anglo-Indian community) 대표 2명 등 총 545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5년이며, 각 주의 의석 수는 인구분포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되어 있음. 인도 수상은 하원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임명.

○ 인도의 사법부

- 인도의 사법부는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주 최고 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되는 3심제임. 대법원은 인도 헌법과 법률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권을 가지며, 대법원의 판결은 모든 법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대법원은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로 구성되며 고등법원은 각 주별로 설치되어 있음.

○ 인도의 주정부

- 주정부 : 주를 대표하는 주지사(Governor)는 5년 임기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주 행정의 실권은 주총리(Chief Minister)가 갖고 있는데, 주총리는 주지사가 주의회 다수당 지도자 중에서 지명함.
- 주의회 : 주에 따라 단원제 또는 양원제이며, 주에 따라 정원을 달리하며, 매 5년마다 주의회 선거를 실시함. 단, 잠무 카슈미르(Jammu & Kashmir) 주는 매 6년마다 선거를 실시함.

□ 한국과 인도의 역사적 관계

- 한국과 인도는 불교 교류 등 수천 년에 걸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1973년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서 관계 발전을 해 오고 있음. 역사적으로도 가야국과 아요디아 왕국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양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는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하여 도왔고, 1953년 정전협정상의 ‘중립국 송환 위원회’ 의장국을 역임했음.
- 한국전쟁 이후 양국 관계는 소강상태를 유지하다가 1973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간 현대 외교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1993년 인도 라오 총리의 방한까지 20년간 우리는 고위 인사 상호 교류 등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고, 인도도 표면적으로는 비동맹 중립 정책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 외교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와의 실질 협력을 보다 중시했음.

- 1990년 이후 한-인도 관계는 남북한 대결로 인한 기존의 정치 외교 중심의 관계에서 무역투자를 중심으로 한 실리적인 관계로 양국 관계가 격상되었음. 1990년대 초 수억불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액은 2011년 200억불을 넘어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1991년 인도 경제 개방 직후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는 부진했지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의 저력과 잠재성을 믿고 적극적인 대인도 투자를 감행, 인도 내 각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수위를 점하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
- 한편 양국 상호 투자진출은 2004년 인도 타타그룹이 한국 대우 자동차 상용차 부분을 인수하고 2010년 마힌드라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것처럼, 한국의 대인도 투자라는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중임. 2014년 1월 대통령이 한국-인도 경제협력포럼 오찬 간담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 정상은 2009년에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강화 방안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를 비롯하여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인도정부는 이러한 노력에 화답, 2015년 5월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음. 또한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중과세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해운 및 물류 협력, 철도 및 도로 협력, 전력 및 에너지 신산업분야, 청소년 교류, 국가 안보실간 협력 등 7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음.

□ 시차 / 근무 시간

○ 시차

- 그리니치 천문대 표준시간(GMT)보다 5시간 30분 빠르며 (GMT+5:30), 한국 표준시간보다 3시간 30분이 느림. 따라서 우리나라 정오12시일 때 현지 시각은 오전 08:30분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1시 이후에야 인도와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함.

○ 근무 시간

-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은 09:00~17:30이며, 매주 토/일요일은 휴무임.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10:00시 이후에야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 또한 부서별로 근무 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며, 뭄바이 공무원 근무 시간은 10:00~17:00 또는 10:30~17:30으로 이원화 되어있음. 첸나이 공무원 근무 시간은 10:00~17:00임.
- 민간기업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상이함. 토요일 정상 근무를 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격주 휴무 또는 매월 둘째 주 휴무인 기업들도 있음. 은행의 근무시간은 평일 10:00~16:00, 토요일은 10:00~12:00에 정상 영업을 하며, 다만 현금 인출기는 24시간 동안 사용 가능함.

○ 공휴일

- 인도의 공휴일은 대부분 종교와 연결되어 있음. 인도는 힌두교, 이슬람, 불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가 혼재하고 있어 각종 종교 관련 공휴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휴일이 많은 나라이며, 인도 정부는 매년 공휴일을 연간17일로 제한하고 당해 연도의 공휴일을 매년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① 자이푸르(Jaipur) 시청

□ 방문목적

- 자이푸르는 인도최초의 계획도시로서 신도시 개발과정과 구도시와 신도시의 균형개발 현황, 환경 등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

□ 방문개요

- (일 자) 2017.7.3.(월) 13:00 ~ 14:00
- (참석자) 31명(우리측 13, 인도측 18)
- (면담자) Ravi Jain (자이푸르 부시장)
- (내 용) 세종시 현황 소개, 방문 이유 설명 및 자이푸르 도시 현황 질의·응답

□ 자이푸르 현황

- (위치)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 (주의 수도)
- (인구) 3,548,512명 (2016년)
- (면적) 484.64km²
- (주요산업) 관광, 섬유, 보석 등
- (관광명소) 앰버요새, 도시궁전, 알버트홀 박물관, 하와마할 등
- (역사) 자이푸르는 라자스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 무굴황제 시대에 황제 악바르와의 혼인을 통한 특별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그에 따른 혜택과 평화를 즐겼던 번왕국 카츠와하의 왕 마하라자 자이 싱 2세(Maharaja Jai Singh II)에 의해 1726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구 시가지를 채우고 있는 분홍색 건물들로 인해 인도의 핑크 시티라고도 알려져 있음.

- (행정조직) 자이푸르 시는 91개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91명의 위원이 있고 그중 1명이 자이푸르 시장이 되어 행정업무를 총괄.
- (의회구성) 의회는 총 2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5년이며, 재임기간동안 총 11회의 회기를 운영.

□ 면담내용

Q1. 공무원의 성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라자스탄 주의 정책에 따라 총 인원의 30%를 여성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
- 국내 공무원 임용제도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당별로 30% 정도의 여성후보자 비율을 의무 반영하는 것과 유사함

Q2. 고대와 현재의 계획도시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자이푸르는 400년된 계획도시로 고대도시와 신도시를 구분하여 고대도시는 보존방향, 신도시는 균형개발을 고려하여 25년간 발전방향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음.

Q3. 자이푸르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 8학년(14살)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12학년(고등학교)까지는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만여개의 국립학교와 그 외 사립학교 역시 정부에서 약 25%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12학년 교육과정 수료 후 자국어 및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음. 대학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진학하고 있음

Q4. 자이푸르의 최대 현안사항은 무엇인지?

- 첫째, 1일 1,300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어 이것을 적기에 처리하여 도시전체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 둘째, 밤이 위험하여 가로등 설치를 시작하여 LED로 약 20만5천개를 설치하였음. 셋째, 하수처리문제가 심각하여 지속적으로 수로를 정비하고 있음.

□ 시사점

○ 고대도시 자이푸르의 형성

- 자이푸르는 지금으로부터 291년전(1726년) 우리나라 조선(영조) 시대에 건설된 인도 최초의 계획도시이고, 고대 인도의 우주관과 연결된 도시이념을 가지며 전체적인 도시형태는 격자형 가로 패턴의 9블록 형태이며, 각 블록의 거리를 특정산업과 교역에 특화거리 개념으로 조성되었음.
- 이는 도시자체의 재원과 인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어려워 인근도시나 국가의 재원과 인력을 특화거리로 이끌어냄을 통해 교역의 중심지로 삼으려한 의도이며,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형성이 아니라 인위적인 구상에 의해 형성된 과거시대의 특화거리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 인도인들의 깊이 있는 도시계획의 흔적을 엿볼 수 있음. 또한 만다라의 개념과 위계적인 질서를 가진 사회 구조가 결합되는 등 고대 인도인들의 상징적 관념을 반영한 계획 도시로 보임.

○ 역사를 보존하는 계획적인 스마트 도시로의 발전

- 자이푸르는 고대시설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옛 시가지는 바둑판 모양인 인도 최초의 계획도시이며, 핑크시티라는 명칭이 보여주듯이 고대시설을 철저히 보호하면서 도시를 계획하였고, 현재 고대도시 안에는 역사와 문화와 더불어 상가와 주택지가 함께 공존하며 도시를 형성.
- 또한 인도 정부의 경제성장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프로젝트 중 하나의 도시로 선정되어 인도의 IT산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도시가 성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이푸르는 과거 291년전 건설된 도시의 모습에 스마트시티라는 최첨단 도시의 모습을 담아 향후 5~10년 후의 자이푸르의 변화와 발전계획으로서 고대도시와 신도시의 균형발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에 있음

- 우리시도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 개발과, 조치원 청춘프로젝트 등의 읍면 개발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도심의 역사를 보존하면서 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미래 세종시 신·구 도심의 조화로운 변화를 구상함이 필요

○ 환경문제 등 우리시의 노하우 전수 및 기업 진출 등 협력사항

- 향후 우리시와 인도 주정부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스템, LED 가로등 및 전력 소모를 최소화 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들을 수출 및 협의해 나간다면 우리시 기업들의 대인도 수출 및 시장 진출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①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축 정책

- 인도는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농업/낙농업 국가이면서 동시에 최대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국가임
- 식품 냉장 설비의 부족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UN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에 따르면 인도 농수산물의 40%(약83억 달러 규모)가 소비되기 전에 부패되어 버려짐
- The 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에 따르면 인도의 냉장 시설 설치 규모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부패하기 쉬운 식품의 약 10% 정도만을 수용 가능한 규모로, 전국적으로 3억 7천만톤 규모의 냉장저장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인도 정부에서는 식품산업의 냉장시설 확충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식품 유통 체계를 현대화하고, 대규모 냉장 저장 시스템과 냉장 트럭 및 기타 유통 설비 구축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함
- 인도 정부는 음식물의 냉장 유통 관련 사업에 대하여 51%의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를 승인함
- 인도 정부 및 NGO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
- 인도 정부에서는 2012년 통합예산(the Union Budget) 중 인프라 구축 예산의 하위 부문으로 체계화된 냉장시스템 구축 부문을 신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MPEDA(The Marine Products Exports Development Authority)는 잉여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냉동설비에 대해 2017년까지 5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계획임
- 인도 자이푸르(Jaipur)에 위치한 CDC(The Centre for Development Communication)는 환경 NGO인 Annakshetra Foundation과 협력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Indian project 22’를 시행함
- Annakshetra는 3R(Reduce, Reuse and Recycle) 모델을 적용하며 CDC로부터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음
- Annakshetra는 각종 연회장, 식당, 종교 시설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잔여음식물을 기부 받아, 음식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약 100만 명의 빈곤층에게 식량을 지원함
- 회수한 식품 중 식용이 불가능한 음식물은 퇴비화하거나, 기타 재활용 시설에서 처리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매립 비율을 감축
- Annakshetra는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음식물 운송 전용 차량을 구비하고, 개선된 냉장 보관 설비를 갖추는 등 점차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가고 있음

② 인도 물 공급 현황, 물 처리현황, 시장진출 기회 및 전망

- 인도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 인구 75%와 대도시 인구 85%만이 공공 상하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물 수송과 보급망이 낙후돼 최근 정부가 지역간 수자원 연결망 운영 사업의 민영화를 검토함
- 낙후된 도시 상하수도 시설개선을 위해 20여 개 도시에서 70여개 상하수도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인도 주요 강에 1천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37개의 강을 연결하여 수자원 공급지역과 부족지역을 연결하는 수로교차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전체 생활용수 공급량의 57%이상을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음
-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지역의 생활용수 요구량도 급격히 증가 추세. 현재 하루 1인당 물 공급량은 70L 정도로 정부는 135L 수준까지 보급량을 증가시킬 계획임
- 2010년 인도의 수처리 시장 규모는 63억 달러로 전체 환경시장(126억 달러)의 절반을 차지
- 도시지역의 하수관거 보급률은 15%에 불과함.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40%가량이 차집)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24%가 2차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는 반면 농촌지역에는 처리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

차집(遮集) : 하수, 우수(雨水-빗물) 등을 '막아서(遮) 모은다(集)'는 뜻

- 상수도 요구량에 미치지 못하는 보급량으로 인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정용 수 처리 장치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친환경 인식 제고 및 주 정부별 제조시설 인허가를 받기 위한 산업폐수처리 시스템의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임

- 기존에는 수자원 이용에 관한 우선순위를 음용수, 관개, 수력발전, 생태, 산업용수, 수송, 기타 순으로 기재했으나 이를 개정해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전 분야의 고른 개발을 강조함
- 배출된 하수의 수거, 처리 및 최종방류의 전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있음에 따라 하수처리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인도정부의 투자확대 계획으로 인도의 잠재된 시장이 열리면서 수처리 분야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게 호재가 예상됨
- 위생 청결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중상류층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정용 정수기와 필터산업의 높은 성장도 전망됨
- 인도 수 처리 시장으로 외국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수 처리 분야의 현지 고급기술 인력이 부족해 해외 전문 인력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임
- 상수도 요구량에 비해 인프라 보급률이 부족한 현실로 당분간 인프라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주정부별로 관개·폐수처리에 대한 민관협력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도시 상하수도 시스템과 장기 운영관리 계약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③ 인도 LED시장 개척

-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에 따르면 인도 LED 시장은 2019년까지 30억 달러 규모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된 품목은 도시 가로등을 비롯한 LED 전구, 다운라이트 등임. 현재 세계에서 판매되는 모든 종류의 LED 조명 시스템들 중 인도에서 소비되는 양은 약 12%이며, 테크사이 리서치 보고서(TechSci Research Report)인 ‘India LED Lighting Market’에 따르면, 인도 LED 조명 시장은 2016~2021년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15년 인도 LED 조명시장에서 실외조명분야가 전체 시장 수익의 60% 이상 획득했으며, 해당 추세는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자료원: 테크사이 리서치 보고서). 인도 LED 조명시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필립스(Philips), 수르야 로쉬니(Surya Roshni), 하벨스(Havells), 시스카(Sys ka), 그리고 오스람(Osram)이 있음.
- 인도의 LED 조명 시스템 소비 증가는 주로 인도 정부가 주도하는 우잘라 스킴(UJALA Scheme)의 영향이 크다고 함. 우잘라 스킴은 모디 정부가 인도 전역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전구를 LED 전구로 교체하는 계획임. 본 계획의 목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있음. 현재 이 계획 하에 유통된 LED 전구는 9700만 개 이상임.
- 이와 관련 한국 기업 제품 인식은 기술적으로 진보돼 있으며, 인도 시장 진출 시 가능성이 있음.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렴한 중국 기업 제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향후 다수 인도 바이어가 참여하는 전시회에 기술적으로 우수한 LED 제품을 선보일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 한국 브랜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방문활동 사진



▲ 자이푸르시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 자이푸르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자이푸르시 방문에 따른 지역 언론인 취재 및 인터뷰



▲ 기념품 전달

② 라자스탄 주 관광청 (Department of Tourism, Government of Rajasthan)

□ 방문목적

- 라자스탄 주는 인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정부의 관광정책, 관광자원 활용 및 세계유산 관리 예산·방법 등에 대한 벤치마킹 실시

□ 방문개요

- (일 자) 2017.7.3.(월) 14:45 ~ 16:00
- (참석자) 20명(우리측 13, 인도측 7)
- (면담자) NIHAL CHAND GOEL (Additional Chief Secretary, 국장급)
- (내 용) 세종시 현황 소개, 방문 이유 설명 및 관광산업 관련 질의·응답

□ 라자스탄(주) 현황

- (인 구) 68,548,437명(2011년)
- (행정구역) 33개군, 7개 구역
- (주 도) 자이푸르
- (면 적) 342,239km²
- (관광객수) 268.23만명(내국인 255.44 만명, 외국인 12.79만명, 2010년)
- (관광자원) 박람회 및 축제(22개), 요새, 궁전, 호수, 종교시설, 박물관, 자연환경
- (특 징) 색깔로 대표되는 4개의 시티가 존재
 - 골드 시티 자이살메르, 핑크 시티 자이푸르, 블루시티 조드푸르, 화이트 시티 우다이푸르



□ 면담내용

Q1. 라자스탄 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 430만명 (2015년)

Q2. 라자스탄 주 관광정책은 무엇인지?

- 2020년까지 현재 관광객 수의 2배 유치 목표

cf) 인도 전체 : 3,300만명에서 5,000만명 유치 목표

- version 1.0(80년대) : 사티야지트 레이(Satyajit Ray) 감독에 의해 그려진 풍경, 독특한 지형, 모험 위주의 관광 정책
- version 2.0(90년대) : version 1.0 + 유적
- version 3.0(현재) : version 1.0 + version 2.0 + 인프라, 청결, 보안 및 마케팅을 중심으로 통합된 계획 구현

-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 다양한 화제거리를 제공
- 지역 지도자 및 관련 투자자들에 대한 캠페인 진행
- 새로운 로고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출시, 광고물제작, TV홍보



fascinating Rajasthan

Q3.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 궁전열차 운행 : 과거 왕들이 타고 다닌 기차를 이용, 7박8일 코스, 8개 지역을 관광하는 상품
- 자이푸르 문학 축제 : 1월경, 유명한 작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문학 축제
- 자이푸르 출범 기념 축제 : 3월경, 7일간, 부탄왕 초청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자연공원, 암베르산성 코끼리 마을 조성 中

Q4. 관광사업 추진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 관광성수기인 10~2월 숙박시설이 부족
 - 농촌지역의 숙박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약 1200억원 투자, 이 프로젝트로 인해 20,000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예상

Q5. 문화유적 관리 예산 확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 입장료와 주정부 지원금 충당

□ 시사점

○ 인도 관광산업 정책

- 모디 정부의 'Make in India' 캠페인 주요 항목 25개에 관광산업 포함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9월 25일 'Make in India' 캠페인을 발표하며 25개 주요 추진 항목에 관광산업을 포함시킴.
 - 4~5성급 호텔 조성에 5년간 면세혜택 제공하는 등 각종 조세 혜택도 늘어남.
 - 도착비자 발급 대상국을 180개로 확대,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 노력 중임.
- 국가 5개년 계획에 관광산업 개발 위한 자금 포함
 - 제12차 5개년 계획(2012~2017년)에 28억 달러 규모의 여행관광 산업 개발 자금이 포함된 것에 이어, 관광부 산하에 관광산업 개발 및 촉진 위원회 신설, 관광 경찰 신설 등 이어지고 있음.
 - 모디 정부가 관광산업을 Make in India 주요 산업에 포함시킨 만큼, 제 13차 5개년 계획에 관광산업 관련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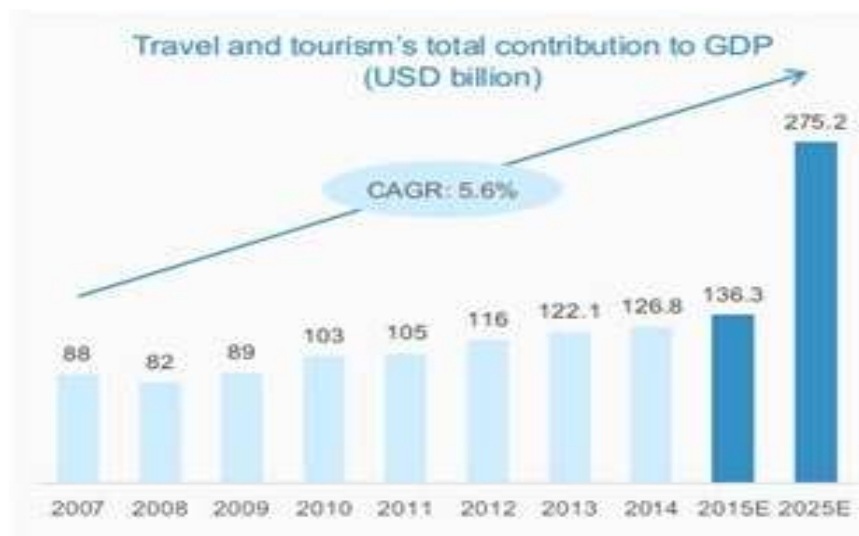
○ 인도 관광산업 인프라 현황

- 국내선 항공망 정비로 국내선 항공 활성화
 - 인도 항공운항정책 초안에서 민간항공부가 국내선 항공 요금을 시간당 2500루피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이 정책 초안에 현재 사실상 운영 중지상태인 인도 내 중소도시 공항들을 활성화해 중소도시에 정기노선이 생길 전망
 - 인도 관광산업의 큰 애로사항이었던 장거리 여행 항공망 부족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됨.

- 철도 현대화 및 고속철도 건설 통해 철도 교통인프라 개선
- 2015/2016 인도 국가예산에 철도 관련 예산을 1조 루피 이상으로 책정, 역사, 승객 편의시설 정비 등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입 중임.
- 8조5600억 루피 규모의 철도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실시해 고속철도 건설, 철도 용량 증대 등에 활용할 계획
- 인도 관광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의 현대화 계획 및 고속철도 건설은 인도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더욱 큰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관광산업 관련 전망

- 꾸준한 성장세, 인도 관광산업의 잠재력 여전해
- 인도 관광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2014년에는 1268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5년에는 1363억 달러, 2025년에는 275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갠지스 문명의 발원지, 32개의 세계 유산,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 등 인도의 관광 자원은 인도가 가진 가장 큰 관광 자산임.



인도 관광산업 성장 규모 (자료원: IBEF)

- 인도 방문 관광객 규모 연 평균 7.1% 규모로 성장 중
- 인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2014년 740만 명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780만, 2025년에는 15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관광객 중 중국 국적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현 추세는 중국과 인접해 있는 인도에도 큰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인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자료원: IBEF)

○ 정책적 제언

- 한국과 인도는 6.25참전, 독립기념일(8.15.) 등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우호적 관계로 관광 파트너십 구축
- 이 번 방문을 통해, 세종시와 라자스탄 주 상호간 관광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라자스탄 관광청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외여행 관계자 초청 행사(200여명)에 우리시 문화체육관광과를 통해 세종시 여행 관계자를 초청하기로 합의
- 라자스탄 주는 계절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와 그 지역의 문화를 이용한 독특한 축제 또는 박람회 개최 벤치마킹
- 낙타축제(10~11월), 연날리기 축제(1월), 겨울축제(11월), 홀리축제(3월), 사막축제(1월) 등

- 특히, 자이푸르 문학 축제(Jaipur Literature Festival)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학쇼’로 인정받으며, 각국에서 20만여명이 방문
- 우리시도 세종대왕 · 한글 · 행정수도 · 김종서 장군 등 대표적 이미지를 이용한 어문학 축제 등 개발을 통한 이미지 제고
-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노력을 통해
 - 첫째, 미디어 확충을 통한 홍보 확대
 - 둘째,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필요
 - 셋째, 호텔 등의 부족 숙박시설 확충 등

·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문화관광 도시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
 ⇒ 특히, 자이푸르 문학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어문학 축제를 개최 · 발전시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문화중심 도시임을 알림.

□ 방문활동 사진



▲ 라자스탄 주 관광청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 라자스탄 주 관광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라자스탄 주 관광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기념품 전달

③ 바랏푸르(Bharatpur) 시청

□ 방문목적

- 바랏푸르의 농업 행정을 확인하고, 인도의 농업정책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

□ 방문개요

- (일 자) 2017.7.4.(화) 15:00 ~ 16:00
- (참석자) 33명(우리측 13, 인도측20)
- (면담자) Shiv Singh Bhont (바랏푸르 시장)
- (내 용) 세종시 현황 소개, 방문 이유 설명 및 바랏푸르시의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과 주요 농업 현황

□ 현 황

- (위치)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 주
- (인구) 약 270,000명 (2016년)
- (면적) 57km²
- (주요산업) 농산물의 집산 및 가공, 착유업, 금속성형업 등
- (관광명소) 케올라디오 국립공원 등
- (역사) 바랏푸르는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토마라가와 차돈가에서 통치 후 델리 직할령으로 되었다가, 무굴제국의 허가를 얻어 자치도시가 된 후 1733년에 세워진 바랏푸르왕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인도 독립 후 라자스탄주에 포함. 최근에 군에서 시로 승격되었음.
- (행정조직) 바랏푸르 시는 50개 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50명의 위원이 있고 그중 1명이 자이푸르 시장이 되어 행정업무를 총괄.

□ 면담내용

Q1. 바랏푸르 시의 역할을 무엇인가요?

- 열악한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박멸작전, 무주택자·여자 등 약자를 돌보는 복지정책 등 ‘인도를 개교하자’라는 슬로건 하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Q2. 인도 및 바랏푸르 시의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 ‘어떠한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으로 인도인들의 정신력 자체가 바랏푸르시의 잠재력임.

Q3. 바랏푸르 시의 농업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 바랏푸르시의 인구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령화로 인해 농업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젊은 농부를 양성하고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Q4. 바랏푸르 시의 주요 농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겨자씨로 오일을 추출하는 농업이 대표적임.

Q5. 농기계 임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 바랏푸르 시에서 직접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일반 업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Q6. 바랏푸르의 예산은 얼마정도인지?

- 예산은 약 100억루피(한화 1,700억원)이며, 지방자치제에 따라 별도의 재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따라서 시에서 직접 결혼식장을 운영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있음.

Q7. 바랏푸르의 최대 현안사항은 무엇인지

- 첫째,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등 도시전체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 둘째, 말라리아, 콜레라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 박멸작전 시행. 셋째, 밤이 위험하여 가로등 설치를 시작. 넷째,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피해방지 장려.

□ 시사점

○ 바랏푸르 등 인도 농업 일반 현황

- 노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확보 절실
 - 인도의 경우에도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되고, 농촌의 이탈문제가 대두되어 젊은 농업인에게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 인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농업정책으로 계약농업, 농지 임대, 기술 교류, 자본 유입 등의 과정을 통해 민간 부문 및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농업 생산량이 높은 인도
 - 인도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며 약 60%가 농업에 의존하는 등 농업생산량이 여전히 높아 인도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하여 영농단계에서의 농기계 및 설비, 물류와 가공에 이르기까지 농업관련 시장이 주목받고 있음
 - 국토가 넓고 강우의 시기가 일정치 않아 쌀, 사탕수수, 땅콩, 목화 등 여름작물과 밀, 콩, 유지작물, 감자 등 겨울작물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쌀, 밀, 참깨, 목화, 사탕수수 등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세계 상위권에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겨자씨 오일 추출 등의 유지농업 또한 인도농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성 기름 소비량 증가에 따라 수입량 역시 증가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유지종자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생산량 >

- 유지 종자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마디아프라데시주로 764만톤, 인도 전체 유지종자 생산량의 30.7%를 차지하고 있음.
- 라자스탄주의 유지종자 생산량은 441만톤으로 인도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7%, 구자라투주는 310만톤으로 12.5%, 마하라슈트라주는 281만톤으로 11.3%, 안드라프라데시주는 150만톤으로 6.0%이었음. 이 다섯 개주는 전체 유지종자 생산량의 78.2%를 차지하고 있음

< 경작면적 >

- 유지종자의 경작면적이 가장 많은 지역은 마디아프라데시주로 677만ha, 인도 전체 유지종자 경지면적의 26.1%를 차지하고 있음.
- 라자스탄주의 유지종자 경작면적은 413만ha, 인도 전체 유지종자 경작면적의 15.9%, 마하라슈트라주는 388만ha로 15.0%, 구자라트주는 279만ha로 10.8%, 안드라프라데시주는 207만ha로 8.0%이었음. 이 다섯 개 주는 전체 유지종자 경작면적의 75.7%를 차지하고 있음.

* 2010년의 유지종자의 단위수확량은 1ha당 1,159kg이었음

○ 인도 농업시장 개척

① 인도 종자산업 시장

- 최근 10년간 인도의 종자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2011-12년 기본종, 원종, 보급종 모든 분야에서 생산량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2015-16년 생산량은 2005-06년 생산량 대비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실제 시장에 공급 되는 보급종의 생산량은 2005-06년 약 141만 톤 수준에서, 2015-16년 기준 약 344만 톤으로 200만 톤 이상 증가함.

< 분류별 종자 생산량 >

(단위: 톤)

구분	기본종	원종	보급종
2005-06	6,823	78,000	1,405,000
2011-12	12,338	222,681	3,536,200
2012-13	11,020	161,700	3,285,800
2013-14	8,229	174,307	3,473,130
2014-15	9,849	157,616	3,517,664
2015-16	8,621	149,542	3,435,248

자료: State of India Agriculture.

- 한편, 교잡종(F1) 종자의 수요량과 가용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인도에서 생산되는 주요 품목인 벼, 옥수수, 팥수수 등 품목의 교잡종 종자 수요량과 가용량을 살펴보면 2012-13년 기준 벼의 교잡종 종자 수요량은 3만 1,600톤 규모인 반면, 2015-16년기준 수요량은 약 3만 8,500톤 규모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옥수수의 교잡종 종자 수요량은 9만 7,000톤 규모에서 10만 1,600톤 규모로 증가 함.
이 외에도 팥수수, 기장, 인도콩, 해바라기, 피마자(아주까리) 등 품목에서 교잡종 종자의 수요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 교잡종 종자 수요량과 가용량 추이 >

(단위: 천 톤)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수요량	가용량	수요량	가용량	수요량	가용량	수요량	가용량
벼	31.6	31.4	42.8	34.2	15.1	19.5	38.5	61.4
옥수수	97	103.5	94	96.6	93.5	106.9	101.6	120.5
팥수수	13.3	14	7.9	10.2	15.6	19	17.7	20
기장	24	27.1	23.6	33.2	21	24.8	24.1	26.6
인도콩	0	0	0	0	0.1	0.1	0.1	0
해바라기	6.4	6.6	4.9	5.4	2.9	3	4.4	4.6
피마자	4	4.3	3.4	4.3	7.1	8.4	6	6.1
목화	22.4	25.4	15.9	17.9	17.9	21.7	18.7	19.8
합계	198.7	212.3	192.5	201.8	173.2	203.4	211.1	259.0

자료: State of India Agriculture.

- 특히 인도의 종자 시장에서 핵심 종자는 목화 종자로 볼 수 있음.
인도는 최대 목화 생산 국가이며, 경쟁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목화 생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향후 인도는 최대 목화 생산지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목화종자는 다른 종자와는 달리 교잡종(F1) 종자의 보급률이 95%를 넘어, 자가 채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이 되었음. 재배면적 또한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르러 다수의 글로벌 종자기업들이 인도의 목화 종자 시장에 진출함.
- 그러나 급격한 교잡종 종자의 보급, 목화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한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종자 사용과 관련한 로열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인도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농업 또한 해외 종자 사용이 빈번하며,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로열티 또한 무시 못 할 수준임.
-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배추와 같은 품목에서 수입 종자가 확대 보급되고, 그 점유율이 90%를 넘기거나 하는, 즉 인도의 목화 시장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부유출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한국의 기후와 소비자 성향에 맞는 한국산 종자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한편, 해외 시장 개척과 유지에도 노력이 필요. 예컨대 우리나라의 고추는 대표적인 환금성 작물로서 종자 시장도 크게 성장함. 인도의 고추 재배 면적은 우리나라의 28배 수준으로, 고추 종자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볼 수 있음. 현재는 태국산 종자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적절한 품종 개발과 보급사업이 이루어 진다면 새로운 종자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인도의 무 종자시장에서의 한국산 종자의 점유율은 74% 수준으로, 한국산 종자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종자 산업은 선점이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종자산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이루어져야 함.

② 인도 농기계 시장

- 인도에서 농업이 GDP에 기여하는 수준은 약 14%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전체 취업인구의 약 55%가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농지 면적도 꾸준히 확대되는 등 인도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경작지 비율은 2014년 현재 약 61% 수준으로, 세계 평균 수준인 1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함.
- 그러나 농촌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농촌에서는 여전히 기계보다 인력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역설적으로 농업 기계화의 장애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인도의 농업분야의 기계화는 아직 시작단계로 정부 보조금의 증가, 건설업·노동력의 이동 등에 의해 농업기계 및 설비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의 농업기계 시장은 전 세계 농업기계 시장의 약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씩 성장해 약 65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인도에서 농업기계는 대부분 트랙터(tractor)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에 비해 탈곡기, 경운기 등 보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이와 관련 농기계 보급이 더딘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분석되었음
 - 첫째, 인도 전체 농업 면적의 약 2/3를 차지하는 영세 자영농은 농촌 기계를 도입할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임.
 - 둘째, 생산성 증가를 위해 농촌기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농촌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가 부족

- 셋째, 인도인구의 약 70%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나 농촌기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유지하려는 고집이 높음.
-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장비 사용, 소형기계 등의 저렴한 제품 공급 등의 구입 비용의 문제, 유지관리 신속 대처를 위한 A/S망 구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
- 인도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농업기계시장은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미개척 시장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정부와 정부 간, 기업과 기업 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개척할 필요가 있는 전략시장으로 볼 수 있음

□ 방문활동 사진



▲ 바랏푸르 시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 바랏푸르 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바랏푸르 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기념품 전달

④ Ti Infotech (IT 회사)

□ 방문목적

- 세계 최대 IT 강국인 인도의 관련 회사를 방문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게 된 원동력, 인터넷 정책, 인재 발굴·육성 및 직원 복지 등에 대한 벤치마킹 추진

□ 방문개요

- (일 자) 2017.7.6.(목) 11:30 ~ 13:00
- (참석자) 15명(우리측 13, 인도측 2)
- (면담자) Narendra Kumar Dixit, Darshan Sharma
(Senior Vice President & Co-Founder, 부사장급)
- (내 용) 해당기업 부서별 업무내용 청취 및 참관, 세종시 현황 설명 및 홍보, IT 사업관련 질의·응답

□ 기업현황

- (기 업 명) TI Infotech Pvt. Ltd.(티아이 인포테크)
- (사업내용)
 - 여행관련 IT 기술 제공 업체
 - 포괄적인 여행 관리 솔루션, 온라인 여행 예약 엔진, 모바일 앱, 기업 셀프 예약 도구 및 전자 상거래 포털 등 개발·제공
- (협력국가) 중동, 유럽,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 (직원수·매출액) 120명 / 85억원

※ 참고 < 인도의 IT산업 >

○ 시장규모 및 분야

- GDP의 약9.5%, 총서비스 수출부문의 45%이상 차지
- IT서비스, BPM(Business Process Mangement), 소프트웨어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하드웨어

○ 인도 IT서비스 산업 성장요인

- 저렴한 비용 및 세금, 적극적인 정부정책, 숙련된 노동력의 공급, 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IT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수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
- 현재 인도는 세계 최대의 IT 서비스 아웃소싱 대상지, 약 1000만명의 IT 노동력 보유, 최대의 장점 가격경쟁력, 미국에 비해 3~4배 저렴

□ 면담내용

Q1. 인도 정부의 인터넷 정책

- 광케이블(개발지역) 또는 위성(미개발 지역)을 통해 인터넷 구축
- 화폐개혁('16.11.8)으로 디지털 페이 사용 증가, 2~3년 후 소매시장규모의 15~20% 사용 증가 전망
-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인터넷 최우선 보급 중

Q2. 직원 복지 내용

- 급여의 24%(회사부담 12%, 개인부담 12%) 정부 기금에 적립
- 주택건설, 유학 및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경우 지급
- 그 외, 의료서비스 및 교육파견 등

Q3. 근무시간

- 09:30~18:30, 담당 국가(중동, 중국 등) 시차에 따라 유연 근무
- SW 개발은 뇌의 휴식 필요한 일, 연장 근무 거의 없음

Q4. 직원 채용 및 인재 발굴

- IT전공자 본인의 이력, 경력, 능력을 홍보하는 사이트를 보고 채용
- 대학교를 방문, 4학년 학생 인터뷰를 통해 채용
- 인터뷰 시 중요 덕목으로는 첫번째 열정, 그 다음이 업무능력
- 경력자 보다 일에 대한 열정이 많은 신입사원 채용 선호

Q5. 인도가 세계적 IT 강국인 이유

- 글로벌 인재를 공급하는 국립 교육기관 IT(인도공과대,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높은 기술력, 낮은 임금

Q6. 인도의 IT분야 교육 내용

- 각 주정부마다 IT교육기관 운영
- 초등학교 4학년부터 컴퓨터 교육 실시, 12학년이 되면 전문코스로 진학

Q7. IT 전공자를 국가에서 특별히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 인도정보센터(NIC)에서 IT기술자를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각 정부 기관에 배치·근무
- 일반기업을 상대로 아웃소싱도 진행

□ 시사점

○ 나날이 발전하는 인도 IT산업 현황

-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인도는 국가 발전을 위해 IT 산업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에 교육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 1991년부터 경제개역을 추진한 인도 정부는 IT 산업 정책 기획과 벤처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IT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고, 이에 따라 IT 인재 공급도 늘어남.
- 또한 모디정부는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캠페인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들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고, 공과대학내 기술 사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해 IT 인재들의 양성을 돕고, IT 보급 정책인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정책을 실시하면서 인도에 대한 IT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면 IT 인재 양성은 더욱 가속화 될 예정.
- 인도의 IT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9.5%정도를 기록하며 3,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 경제 발전의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 발전하는 인도의 IT 산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도 출신의 IT 인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양성되는 IT전문 인력은 해마다 12만명에 달하고 있음.
- *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마이크로소프트의 사त्या 나델라(Satya Nadella) 등이 인도 출신의 대표적인 IT 인재
- 이처럼, 인도는 IT 인력 양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노력하는 것이 인도가 세계적인 IT 산업 강국이 되어온 비결.

○ 인도가 IT 산업에서 앞서는 이유

-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IT 육성 정책의 성공
- 인도정부는 IT 법령을 이미 제정해 놓음으로써 전세계에서 사이버 법률을 가진 12개 국가 중의 하나임.
- 인도정부는 1960년 후반부터 고등기술교육, 연구개발(R&D), 통신 네트워킹, 기초 과학교육에 대해 투자해 왔음.
- 인도 정부의 주요 IT 육성정책은 다음과 같음.
 - 인도 정부는 정보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산하에 IT 전담 부서(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를 두고 있으며 1998년에는 IT 및 소프트웨어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발족, 이분야 최적의 성장을 달성하고 정부에 정책제언을 하도록 함.
 - IT분야에서의 기업인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도중소기업은행은 지금까지 10억 루피의 국가 벤처기금을 조성해왔으며, 민간과 외국인의 벤처자금도 IT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자금 활용에 적극적임.
 - 인도의 실리콘 벨리인 방갈로르를 비롯한 주요도시에 '소프트웨어 기술단지' (Software Technology Park of India, STPI)를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초고속 데이터 전송 links를 포함한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세제혜택, 통관지원, 창업지원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IT 산업의 잠재력과 IT 전문인력의 훈련 및 재훈련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0년에 280만 루피를 IT 교육에 별도로 할당하였음.

- 또한 인도 정부는 IT 소프트웨어 수입에 대한 무관세, 소득세 면세 구역,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금지하기 위한 인도 저작권법 개정 등 일련의 산업진흥 정책을 도입했음.
- 양적으로 풍부하고 뛰어난 기술 인력
 - 인도는 45만 명의 IT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과반수가 경력5년 이상의 숙련 인력임.
 - 인도공과대학(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IIT)를 비롯한 230여개의 종합대학 2,100여 개의 컴퓨터 관련학과와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매년 약 12만 명의 IT 관련 인력이 배출되고 있음.
 - 이들 중 매년 4~5만 명 이상이 해외로 진출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있으며, 미국 실리콘 벨리의 경우 기술자 중 30 ~ 40%를 인도인으로 충당하고 있음.(미국의 취업비자인 H1B 비자 중 85%가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에 발부되고 있음).
 - 인도 기술인력의 연봉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볼 때 50% 이하임. 하지만 이연봉 수준도 인도 내에서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의 연수입보다 훨씬 더높은 수준이므로 자연스럽게 인재들이 몰리고 있음.
- 세계 수준의 인도 기술인력과 기업
 - 완벽한 외국어(영어) 구사력, 의사 소통 문화, 문제 해결 중심의 대학 IT 교육, 탁월한 팀 위주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 인도는 세계 시장에서 당장 사용 가능한 세계화된 인력을 보유함.
 - 미국식 개발 체계와 교육 훈련을 도입하여 세계 수준의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이 가능함.

- 프로젝트 기획/ 개발/ 시험/ AS에 SEI-CMM기법을 적용하여, 현재 CMM level-5를 취득한 전세계 52개 사 중 38개 사가 인도회사임.
- * ISO 9000은 SEI-CMM과 비교시 level 3 단계에 해당한다고 함.
- 그리하여, 현재 MS, Oracle, CA 등 주요 IT업체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훈련과정을 대행하고 있음.
- 상당한 규모의 인도 국내 시장
- 인도의 IT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시장은 최근 매출, 서비스, 제품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옴. 방대하고 자유로운 국내 시장은 인도 IT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수익의 기본 원천이 되고 있음.
- 인도 국내시장은 2001년 2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산화, 전자정부, e banking, 전자상거래 등의 대규모 작업이 이루어짐.

○ 한 · 인도 IT 협력의 가능성

- 한국과 인도는 90년대 들어서서 지식기반경제 육성의 일환으로 IT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한 결과, 양국이 국제적으로 선망 받는 IT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음.
- 특히 한국은 인터넷 및 정보통신에 강점을 갖고 있음.
- 한국은 전체 인구의 5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100명중에 44명이 PC를 보유하고 있음(1996년의 630만대=>2001년의 2,000만대).
- 이동통신기기 CDMA 서비스가 1996년 상용화된 이후 CDMA 2000-1x 등 세계적으로 선두를 기록해왔으며, 2002년 3월 현재 휴대폰 가입자는 3,000만이 넘어 국민의 63.8%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한국의 IT 분야 제조업은 특히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모니터 및 주변기기, LCDs, Digital TV 등에서 앞서 있음.

- IT 분야는 여전히 한국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특히 한국정보인프라(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 KII)는 2000년까지 144개의 주요 지점을 광통신망으로 연결했으며, (무선) 통신가입서비스 개선을 위해 ADSL, LATV네트워크, ISPN, 무선 서비스 및 위성서비스를 보다 강화 및 개선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음.
 - 많은 한국기업들은 IT 관련 인적 자원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기간에 한국 내에서 IT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인도 IT 인력은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IT 산업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는 21세기 IT 세계를 선도함에 있어 양국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과 한국산 하드웨어 산업간 교류를 확대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3국 공동진출 등 전략적 제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제언

- 학생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마련과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당분야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계화를 위하여 기초학문과 더불어 영어 등의 외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방문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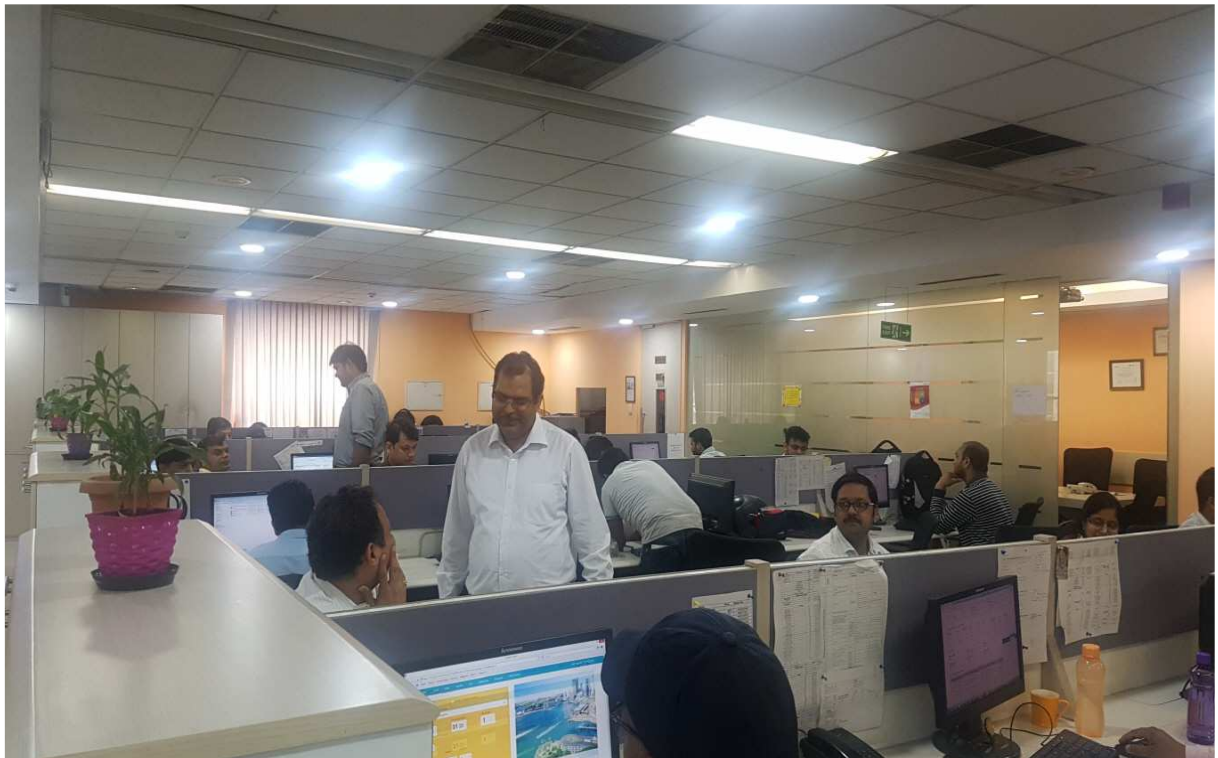
▲ IT 회사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 IT 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IT 회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IT 회사 관계자들의 업무 현황

⑤ 한국문화원

□ 방문목적

- 인도의 한국문화 확산 및 한국과 인도의 문화교류 등 한국문화의 인도 진출 활동 내용 청취

□ 방문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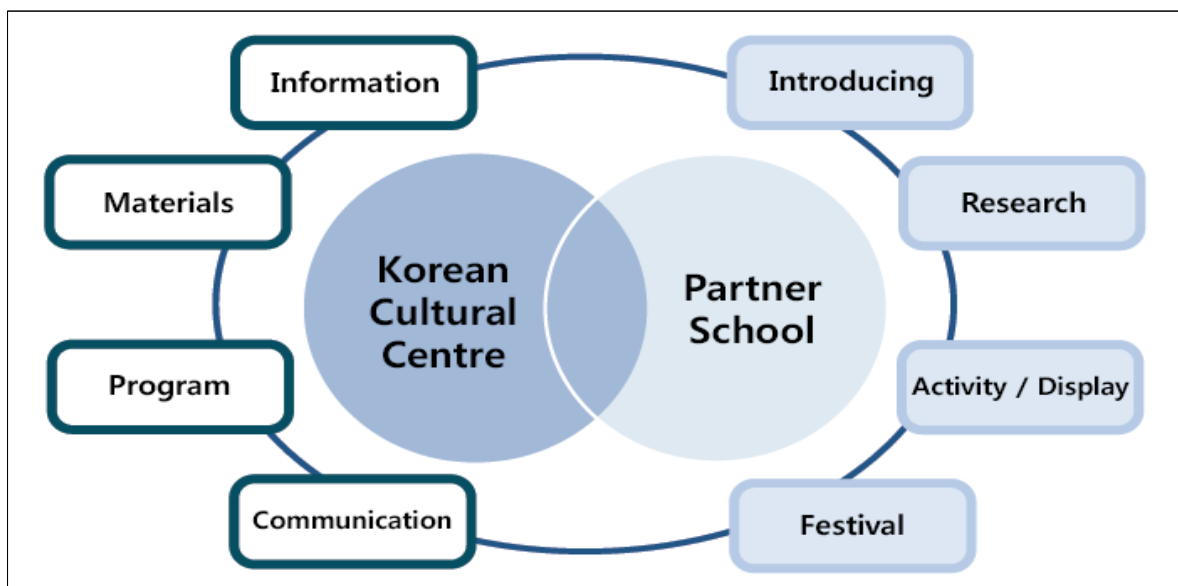
- (일 자) 2017. 7. 6.(목) 15:00 ~ 16:00
- (참석자) 15명(우리측 13, 문화원2)
- (면담자) 김금평(한국문화원장)
- (내 용) 한국문화원의 역할 및 인도내의 한국 문화 전파 프로그램 소개 등

□ 현 황

- (개관) 2012년 12월 13일
- (주소) A-25, Lajpat Nagar IV, New Delhi, DL 110024
- (직원) 김금평 원장외 31명
- (시설) 강의실1, 도서관1, 태권도실1, 문화원카페1, 단군홀, 대청마루, 문화강좌실, 백남준홀, 회의실1
- (역할)
 - 한국어, 태권도, 꽃꽂이, 사물놀이 등의 강좌
 - 설, 대보름, 단오 등 세시풍속 소개를 통한 한국 전통문화 확산
 - 교류전시회, K-POP 페스티벌 등 행사 주최
 - 한국·인도의 우호관계 역할

○ (주요사업)

- E³ KOREAN-CULTURE(인도학교 프로그램과의 연계)
- 2013년부터 인도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특별한 프로젝트로 델리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이 한국과 인도사이의 문화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업61개의 학교와 파트너 쉽을 맺고 있으며, 45명의 한국과 인도의 아티스트가 1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개의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



- 연간프로그램 : ‘Korean Cultural Centre Tour’ ‘Korean Cultural Workshop’
‘Korean Cultural Classes at Schools’
- 특별프로그램 : ‘Korean Cultural Bookshelf ’<window on korea >’
‘Korean Performing Arts at Schools’
‘Korean Fairy Tale Storytelling Tour’
‘Indo-Korean School Exchange Program’

□ 면담내용

Q1.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 한국어, 태권도, 꽃꽂이, 사물놀이 등의 강좌와 설, 대보름, 단오와 같은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담은 전통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한·인도 교류전시회, K-POP 페스티벌과 같은 문화의 보편성을 살린 행사 등을 주최
- 현재 ‘케이팝콘테스트 2017’ 이 6월 24일 뉴델리를 시작으로 전인도 11개 도시에서 한달간 개최

Q2. 인도인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 정도는 어떤가요?

- 한·인도 간에는 오랜 교류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 인도인들은 한국문화에 대하여 상당히 우호적임
- 한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인 국악, 무용, 사물놀이, 태권도, 한글 등 전통예술과 전통문화가 인도에서 큰 호평

Q3. 한국과 인도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 있나요?

- 한국문화원은 한·인도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공하고 부족한 것을 메워주며 서로의 모습에서 배워가며 그들에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우호관계를 공고히 할 것임

Q4. 성장가능성이 무한한 인도의 힘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 개발논리나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일괄적인 개발이 아닌 시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시민들이 동의 할 때까지 기다려 주며 동반성장하는 것이 인도의 에너지라고 생각함.
- 이미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

□ 시사점

○ 한국과 인도의 문화교류

- 1974년 한국-인도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8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한국-인도 문화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음. 양국은 동 위원회에서 합의된 한국-인도 문화교류계획서에 따라 종교, 문화, 예술, 문화산업, 신문, 방송,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오고 있음.
- 특히 2009년 9월 서울에서 제7차 한국-인도 문화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2009년~2011년 문화교류계획서(CEP, Culture Exchange Program)’에 서명하였음. 2009년~2011년 문화교류계획서에는 첫째, 문화공연 및 전시회 개최, 문화 관련 전문가·작가 교환 방문, 불교 전문가·출판인 교환 방문 장려, 둘째, 청소년과 스포츠 선수 교환 방문, 셋째, 언론, 방송, 영화 분야 협력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 한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인 국악, 무용, 사물놀이, 판소리 등 전통 예술과 전통문화가 인도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점차 연극, 영화, 패션, 태권도, 음식, 미술, 조각, 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음.
- 또한 한국·인도의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공기놀이, 자치기, 비석치기에서부터 우리의 왕실로 시집 온 아유타국의 허황옥까지, 양국은 부지불식간에 맺어온 인연으로 가득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 활발한 교류의 부재로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상당히 먼 이웃으로 느끼게 되었으나 인도라는 대국에 다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한국문화원은 2012년 12월 13일에 문을 열었음.

- 특히 한국문화원은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 친구들에게는 한국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아직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음. 한국어, 태권도, 꽃꽂이, 사물놀이 등의 강좌와 설, 대보름, 단오와 같은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특수성을 담은 전통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한•인도 교류전시회, K-POP festival과 같은 문화의 보편성을 살린 행사를 주최함으로써 우리는 인도와의 우정을 되살리고자 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 인도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에서는 61개의 학교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의 아름중학교가 현재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등 문화교류 확산에 이바지 하고 있음.

○ 2017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pop 등 대중음악 인도 열풍

- 인도에서는 2017년 K-pop 콘테스트가 뉴델리를 시작으로 전인도 11개 도시에서 한달간 개최되고 있으며, 우승자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등 한국의 대중음악이 확산되고 있음.
- 지난 6월 24일 델리 지역예선을 시작으로 전 인도 11개 지역에서 치러지는 K-POP 콘테스트 2017 인도(K-POP Contest 2017 India) 지역 예선이 시작됐음.
- 델리, 파트나, 첸나이, 아쌈, 미조람, 나갈랜드, 벵갈로르, 하이데라바드, 오디샤, 캘커타, 뭄바이에서 7월 8일까지 치러진 행사에는 작년의 두 배인 424개 팀, 참가자 898명이 노래와 춤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러 그 중 절반이 무대에 올라 지역 우승을 거두었음.

2017년 지역 예선에는 3천 6백여명의 관객이 몰렸으며, 각 지역의 행사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은 참가자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음. 팬들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미조람, 나갈랜드, 오디샤, 벵갈로르 지역에서는 콘테스트 행사 외에도 팬들이 직접 아이돌 관련 물품을 판매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을 그리거나 한글로 메시지를 남기는 등 다양한 콘텐츠로 대회를 풍성하게 했음.

- 아쌈, 하이데라바드, 뭄바이에서 치러진 행사에는 신인그룹 루첸트 (LUCENTE)가 게스트 및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K-POP 아이돌 다운 멋진 무대를 선보인 이들은 인도 언론과 팬들에게 엄청난 환호와 관심을 받으며, K-POP 인도 시장의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음.
- 선발된 24팀은 창원에서 열릴 K-POP 월드 페스티벌(K-POP World Festival) 인도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결선에서 만났고, 7월 29일 뉴델리 텔카토라(TalKatora) 경기장에서 치른 결선전에는 새로운 K-POP 스타의 탄생을 응원하기 위해 2천명의 관객이 함께하였음.
- 또한 인도 한류 커뮤니티가 주도한 한국 퀴즈 대회, 한복 입기 체험 부스 등도 설치해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한국어 메시지 써보기, 플래시몹 등도 더불어 진행하였음.

- 2017년 K-pop 콘테스트 안내문



K-POP CONTEST

INDIA 2017

11 REGIONS

Delhi

Date: 24 th June 2017 (Sat)
Time: 5:00pm
Venue: Korean Cultural Centre India

Patna

Date: 30th June 2017 (Fri)
Time: 2:00pm
Venue: YGL Hall

Chennai

Date: 30th June 2017 (Fri)
Time: 3:00pm
Venue: Hindustan University, Andromeda Lecture Theatre

Bangalore

Date: 2nd July 2017 (Sun)
Time: 4:00pm
Venue: Telugu Vignana Samithi
16th Cross Rd, Gayathri
Devi Park Extension, Malleshwaram

Assam

Date: 30th June 2017 (Fri)
Time: 6:00pm
Venue: Prag Jyoti ITA Centre for Performing Arts

Nagaland

Date: 1st July 2017 (Sat)
Time: 5:30pm
Venue: Regional Centre of Excellence for Music and Performing Arts (RCEMPA) Jotsoma, Kohima

Mizoram

Date: 1st July 2017 (Sat)
Time: 6:00pm
Venue: Vanapa Hall, Aizawl

Hyderabad

Date: 4th July 2017 (Tue)
Time: 5:00pm
Venue: Shipakala Vedika
Hi Tech City

Odisha

Date: 5th July 2017 (Wed)
Time: 5:00pm
Venue: Convention center, Campus 6, KIITs University

Mumbai

Date: 8th July 2017 (Sat)
Time: 5:00pm
Venue: Rama & Sundri Watumull Auditorium, Kishinchand Chellaram College

Kolkata

Date: 8th July 2017 (Sat)
Time: 3:00pm
Venue: Gandhi Bhavan, Jadavpur University

FINALE

Date: 29th July 2017
Time: 5:00 pm
Venue: Tal Katora Indoor Stadium, New Delhi

Delhi, Mumbai, Assam, Hyderabad, Chennai, Nagaland, Mizoram, Kolkata, Odisha, Bangalore, Patna

For detailed information-T: 01143345000/5033 www.kpopindia.com [/koreanculturalcentreindia](https://www.facebook.com/koreanculturalcentreindia) [koreanculturalcentreindia](https://www.instagram.com/koreanculturalcentreindia) koreanculturalcentreindia@gmail.com



LUCENTE

Guest Judge: Assam, Hyderabad, Mumbai, Delhi Grand Finale



○ 정책적 제언

- 이처럼 세계2위, 약 13억 인구의 인도에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여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국·일본에서 벗어나 관광객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 인도한국문화원과 함께 우리시 주요 음식, 농산물, 문화 등에 대한 홍보 및 판매활동 전개 하여 농가소득 증대 필요
- 또한, 현재 우리시의 아름중학교가 인도 학교와 교류하고 있어 다양한 학교가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인도 학생들과 우리시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보고 배우는 기회의 장을 통해 미래 협력 파트너십 구축.

□ 방문활동 사진



▲ 한국문화원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 한국문화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 한국문화원 홍보영상 시청



▲ 싸이 등을 활용한 K-POP 열풍 확산

⑥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 방문목적

-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인도의 경제 현황 및 투자 유치 등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추진

□ 방문개요

- (일 자) 2017.7.6.(목) 17:00 ~ 18:30
- (참석자) 16명(우리측 13, 코트라 3)
- (면담자) 박한수 (서남아시아지역본부장 겸 뉴델리무역관장)
- (내 용) 인도의 산업 및 경제 현황 청취, 한국전용공단 현황, 투자유치 관련 질의·응답

□ 기업현황

- (명칭) 코트라 뉴델리 무역관
- (위치)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구르가온
- (직원수) 25명
- (관할지역) 인도 뭄바이, 첸나이, 벵갈루루 관할지역외, 네팔
- (주요업무) 해외시장개척 지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등

○ 코트라 기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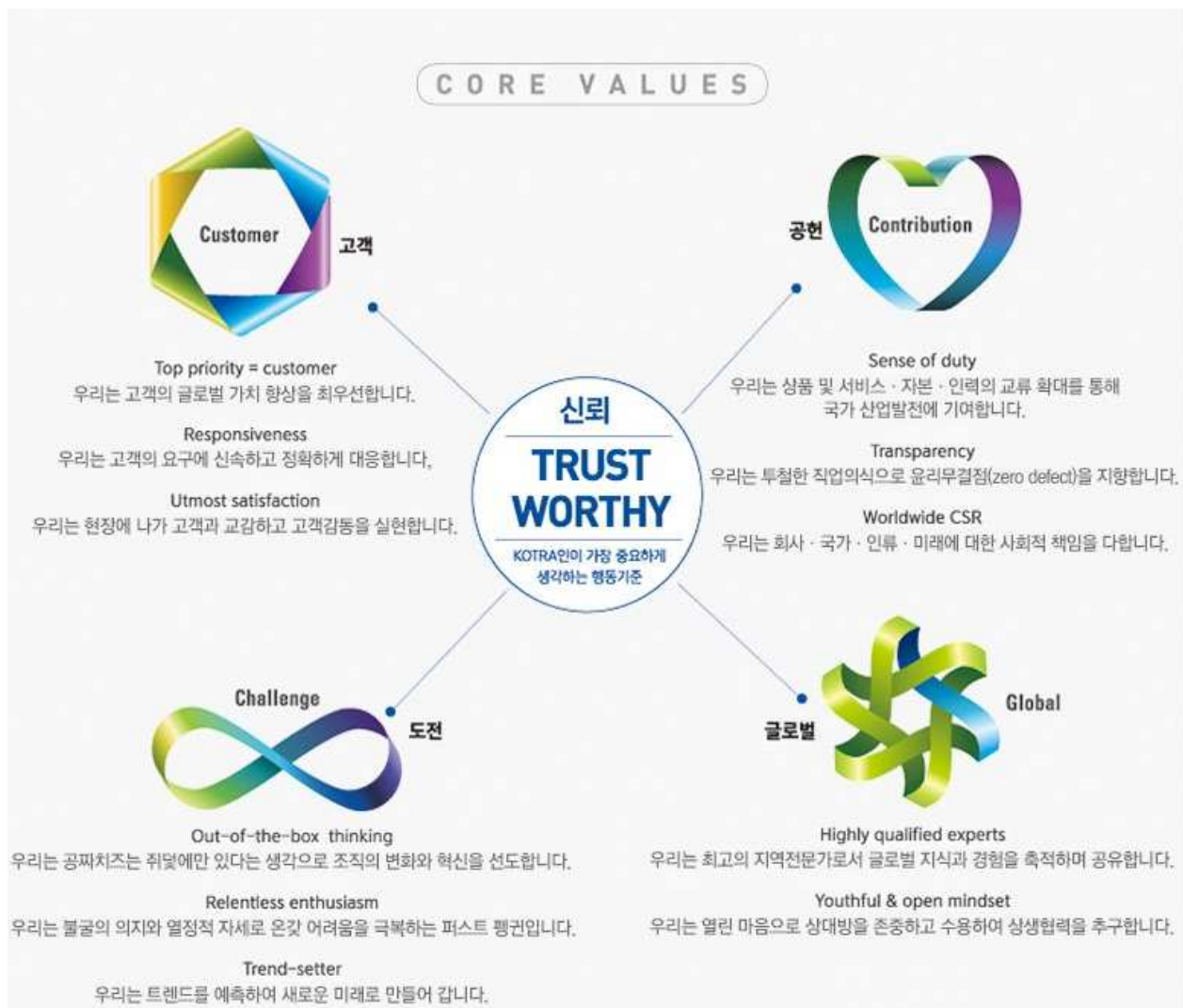
-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 주요기능 및 역할

-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해외시장정보 생산, 전파 및 컨설팅, 외국인 투자 유치,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연수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 국가브랜드 제고, 국제개발협력 지원, 방산물자교역 지원, 정부수입사업 수행

전략목표 및 과제

무역 · 투자 사업 고도화	1.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 2. 수출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3. 국내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4.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전략적 외투기업 유치
새로운 글로벌 시장 개척	5.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 6.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7. 새로운 무역방식에 선제적 대응 8. FTA 등 통상협력과 정상외교의 전략적 활용
고객가치와 상생협력 최우선	9.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 10. 현장 중심의 사업운영 강화 11. 소통 중심의 부서간 협력 강화 12. 수요자 중심의 개방형 협업 강화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구축	13. 핵심사업 위주의 사업구조와 프로세스 혁신 14. 지속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15.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 강화 16. 선진 경영 시스템 정착으로 공공기관 혁신 선도



□ 2017년도 코트라 주요사업

○ 인도 시장 진출기반 조성

- 미지의 시장 인도에 대한 정보확산에 주력
 - 경제관련 주요 이슈 파악 및 심층분석 실시
 - 조사중점 7대 산업 선정, 인도 소재 무역관별 심층보고서 작성
 - 인도 시장정보 확산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구축
- 거대시장 인도 진출을 위한 권역별 진출전략 제시
 - 북부(뉴델리), 서부(뭄바이), 남부(첸나이, 벵갈루루), 동부(콜카타)의 4대 권역별 시장분석 및 진출전략 보고서 작성
 - 동부 벵갈지역 및 동북부 8개주 등 미개척 지역 시장개척

○ 인도시장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사업 추진

- 인도진출 중점 7대 산업 선정 및 관련 사업 추진
 - (기존산업) 기존 주력산업에 대한 진출지원 지속, 수출 촉진
 - (신규산업) 인도 소비시장 확대, 대규모 투자 및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와 관련된 신산업 분야 진출지원
 - 산업별 유관 공공기관, 협회와의 공동사업 적극 추진
- 국내외 기업 동반진출, 사회공헌을 통한 전략적 접근
 - (대·중소 동반진출) 대기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시장의 특성 활용, 동반진출 중소기업 집중지원
 - (글로벌 파트너링) 인도진출 글로벌 대기업과 한국기업의 협업 수요 발굴
 - (CSR) 인도의 CSR법제화 관련, 단순 봉사활동을 벗어난 기업활동 연계 CRS 성공사례 발굴

○ 인도시장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사업 추진

- 재외인도인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사업
 - (중동-아프리카) 지역내 재외인도인 기업과 한국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 (ASEAN) 인도-ASEAN FTA 활용, ASEAN 진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진출 지원사업 추진
- 기존 주력시장 성공 노하우 및 네트워크 적극 활용
 - 중국 온라인 시장진출 한국기업 성공사례 벤치마크 및 협업사업 진행
 - 인도진출 일본기업과의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 추진

□ 인도 진출 대기업 성공사례

○ LG 전자

- 1997년에 인도에 진출한 LG전자는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서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에어컨 등 주요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뭄바이 근처 뿌네에서는 핸드폰 등을 생산하고 있음. 현재 LG는 인도소비자에게 가장 사랑 받는 가전, 디지털 전자 메이커로 인식 되고 있으며, 매년 20~30%의 매출액이 증가 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LG전자는 끊임없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와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현지화 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LG전자의 성공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인도시장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결과라고 분석 되고 있음.

- 기존 인도업체(오니다, 비디오콘 등)나 글로벌 기업(소니, 파나소닉)이 유통망과 AS서비스 망을 직접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비해, LG 전자는 인도 현지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지방이나 농촌을 포함한 인도 전역에 제품 공급 및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음. LG전자의 지역거점은 46개소, 지역사무실은 124개소에 달하며 딜러는 3,200개, 간접 딜러(Sub Dealer)는 8,700개에 달하며, 또한 서비스 거점은 전국 2,700개소에 달해서 다른 경쟁기업들을 압도하고 있음.
- 끊임없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부품의 현지조달 확대와 원가절감을 달성하고 인도 소비자에게 맞게 바꾼 제품을 출시하여 인도인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하였으며, 한편으론 고급 이미지 구축과 전사적인 차원에서 인도시장을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한 LG 전자는 주요 생산품목에서 1-5위 수준을 기록하며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현재 인도 전자제품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1, 2위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삼성전자

- 1995년에 인도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뉴델리 인근 노이다 지역에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뉴델리 서쪽 구르가온에 핸드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 하고 있음. 삼성전자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시장점유율 이나 매출 면에서 LG전자보다 약간 뒤지는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LG 전자와는 달리 가전뿐만 아니라 반도체, 네트워크분야 등 다양한 사업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최근 그룹 차원의 인도 진출 확대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인도에서의 고급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다양한 신규분야에서 시장 내 수위를 점하려는 다양한 신규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 삼성전자는 서남아 총괄체제를 유지하여 인도뿐 아니라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몰디브, 부탄 등 서남아 지역의 판매를 총괄하고 있으며 서남아 총괄은 인도 뉴델리에 위치해 있음. 뉴델리 서남아 총괄을 중심으로 19개의 지점오피스를 전국에 걸쳐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 전자기기 주요 생산품목에서 1-5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부문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

- 1997년 말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공장은 첸나이 인근 소재)는 진출 2년 만에 인도 소형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인도 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06년 3월 생산 개시 8년 만에 1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하였는데 이는 인도의 최단기간 기록을 갱신한 것이며, 이러한 성공은 인도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여타 경쟁사의 진출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무엇보다도 열악한 도로 여건, 높은 기온, 저가 모델 선호 등 인도시장 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및 AS망 구축이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현재 현대자동차는 소형차 부문에서 한국모델 아토스를 현지에 맞게 변형시킨 SANTRO, the Getz Prime, i10과 인도에서 해치백 부문에서 인기가 높은 i20, 준중형차 부문에서 Accent(한국 모델명 베르나), Verna, 엘란트라(한국 모델명 아반떼)와 소나타 등의 차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2번째로 큰 자동차 조립업체 이면서 최대의 승용차 수출기업임.

□ 면담내용

Q1. 인도에 외국기업들이 진출하는 큰 이유는?

- 우선 내수시장이 상당히 큰 것이고, 인적자원이 많음.

Q2. 인도의 인건비 수준은 어떤지?

- 중국과 비교하면 약 50% 수준으로 보고 있음

Q3. 외부 기업 규제에 대한 인도 행정은 어떻게 하는지?

-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등의 경제 개방을 하고자 하나, 부유층에서는 시장개방에 부정적이고 외국자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정부에서는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Q4. 인도의 넓은 땅이 많음에도 활용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 인도에서도 도시화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한국과 비교하여 토지수용법이 없어 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부유층으로 토지소유자가 반대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없음.

Q5. 인도 사업진출 시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 기준에 대한 차별은 없고, 혜택면에서 법인세를 5~10년간 협상에 따라 비율은 다르나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음.

Q6. 인도에 이미 조성된 한국전용 산업단지의 분양은 어떤지?

- 산업단지는 있으나 아직 입주한 기업은 없음.

Q7. 기업들이 인도에 관심이 있는데,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지?

- 기업들이 중국으로 진출이 어렵게 되자 대안으로 인도를 선호하고 있으나, 인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Q8. 인도가 중국보다 멀어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는지?

- 현재는 없고 그 부분이 아쉬움. 일본의 경우 자금력이 있어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나 한국은 금융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1조원정도 전대차관을 마련하여 금리 자체를 인하해 주려고 하고 있음.

(현재 인도금리는 12%대로 상당히 높아 3%대로 해주려고 하고 있음)

Q9. 인도의 경우에도 중국의 사례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동반성장 되는 것이 아닌지?

- 미국과 비교하여 미국경제가 2~3% 성장은 헝가리 같은 나라가 생길 수 있는 규모이며, 미국은 제3지대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인건비가 동일시 되고 있음.
- 인도의 경우에도 약7% 성장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생길 수 있는 규모이며, 인도는 자녀를 많이 낳고 있어 인구성장이 지속적으로 되는 등 신규 노동력이 생기고 있어 물가가 성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과는 차별성이 있음.

Q10. 인도와 한국의 무역 불균형이 되어 있는데 한국기업 진출에 문제는 없는지?

- 인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에 최대한의 원조를 하여 작년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Q11. 기업진출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 특별한 것은 없으나, 유통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 인도는 유통업 종사자들이 많아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방을 하지 않고 있음

Q12. 산업단지에 기반시설(전력, 수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전력은 현재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서 문제는 없으나, 시설면에서 좋지 않아 정전이 가끔 발생되고 있음. 수도시설은 겐지스강을 활용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시골지역에는 공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기업에서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 또한 비상발전기 및 비상용수를 별도로 개발하여 기업의 입장에서는 2배의 투자가 되고 있는 실정.

□ 시사점

○ 경제선진국으로 지속 발전중인 인도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인도경제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연평균 7.1%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을 대신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
- 또한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2030년 세계 노동인구의 20% 이상이 인도에 집중되어 생산과 소비가 높아지는 등의 거대한 미래시장으로 될 수 있음
- 세계적인 IT 산업을 활용하여 세계 인도인들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새로운 생산 거점이 될 것임.
- 인도정부는 인도 경제성장의 핵심정책으로 Make in India 캠페인을 전개하며,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임.
- 제조업 진흥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2016년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464억 달러이며 2015년 대비 18%가 증가되는 등의 투자유치가 활성화
- 인도정부의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인도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

- ‘인도에서 제조하세요’라는 슬로건을 시작으로 해외 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인도로 유치,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자는 핵심 경제개발 프로젝트
- 대표적인 사업환경 개선 분야
 1. 회사법에 따른 법률준수의 단순화와 기업설립 간편화
 2. 인도에서의 사업운영을 위해 상품수출입 필수서류 축소(11개->3개)
 3. 노동법의 행정간소화 및 디지털화
 4. 새로운 사업체의 인허가나 세무등록을 위한 온라인 포털 런칭
 5. 투자촉진기구인 ‘Invest India’설립
 6. India Trade Portal등의 무역관련 종합포털사이트 운영
- 25개 산업군 : 자동차, 자동차부품, 항공, 생명공학, 화학, 건설, 국방시설, 전자기기, 전자시스템, 식품가공, IT/BPM, 가죽, 연예 오락, 채광, 오일/가스, 제약, 선박/항만, 철도, 재생가능 에너지, 도로/고속도로, 우주, 의류/텍스타일, 화력발전, 관광, 건강

○ 코트라 등 지원기관을 통한 현지 투자진출

-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코트라는 뉴델리 무역관 내에 한국투자기업 지원센터를 설립, 한국기업의 인도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현지 로펌 및 회계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 투자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현지 법률, 조세 관련 상담이 가능함
- 아울러, 인도 중부 라자스탄 주와의 협약을 통해 뉴델리 인근 길롯에 한국전용공단을 조성하였으며, 관심기업의 현장방문 및 현지 투자공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있음
- (Korea Plus) 외국기업 투자유치 전담기관인 Invest India 산하의 한국인 기업전용 투자유치 데스크임
- 2016년 6월 개소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진출 관련 상담, 유력 지역소개, 對인도정부 애로사항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참고 : 인도 한국전용공단 사업개요 >

- 추진목적 :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의 큰 장애요인인 부지확보 애로 해소 및 양국간 투자활성화 촉진
- 사업명 : 인도 라자스탄 길롯 한국전용공단 조성
- 부지할당(잠정) : 2015년 2월 ~ 2015년 3월
- 공단조성/운영 : 라자스탄주산업개발투자공사(RIICO)
- 코트라 역할 : 공단 관심기업 유치, 한국기업 추천
- 주요 사업내용
 - 위치 : 라자스탄주 길롯(뉴델리 서남단 110km 지점(차로 2시간 소요))
 - 규모 : 106.481 ha (263.11에이커, 1백만㎡)



▲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한국전용공단임

- 토지가격(2014.12.12 현재) : 3,500루피(60달러 상당)/m²
 - * 라자스탄주 정책, 규정 및 기타 변경 시 조정 가능
- 입주조건 : 인도내 법인(한국기업 지분 51% 이상) 소재 및 코트라 추천을 받은 기업
- 입지 분석
 - 편리한 접근성 및 인근 광역상권 연결 가능 : DMIC, 철도/광역전철 및 고속도로로 연결, 델리 NCR 광역상권 인접
 - 제품원가 및 부대비용 절감 가능 : 저렴한 토지비용, 인접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원재료 조달, 아웃소싱, 운송비 등 절감가능
 - * 한국전용공단 10km지점에 Inland Container Depot(Katuwasa내륙항) 구축 예정
 - 외국기업 입주에 적합한 우수한 인프라 및 풍부한 노동력 : 토지 분쟁 및 노동분쟁 사례가 적고 전력상황 우수, 다양한 교육기관 소재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 가능
 - 외국인투자가에 우호적이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주 정책
 - * 한국전용공단 15km지점(님라나)에 최초 외국전용공단인 일본전용공단 조성(입주가능 면적의 83% 분양 완료)

○ 코트라를 통한 인도 수출시장 진출

- (1단계) 시장조사

- 코트라는 해외시장뉴스포털(<http://news.kotra.or.kr>)을 통해 정기적으로 인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파하고 있음. 인도 거시경제 현황, 제도, 산업 및 투자현황, 유력 품목 및 시장에 대한 조사 보고서 접근이 가능함.
- 시장조사서비스의 경우 크게 맞춤형 시장조사, 사업파트너연결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맞춤형 시장조사를 통해 원하는 품목의 시장수요, 경쟁현황, 수입제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음.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를 통해 제품수요가 있는 현지 바이어와의 교신이 가능함

- (2단계) 전시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비즈니스 출장지원

-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에 대한 정보와 잠재 바이어가 파악된 경우, 실제 거래선 개척을 위해 마케팅 사업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비즈니스 출장지원은 제품수요가 있는 바이어를 발굴, 현지 방문시 상담지원을 하는 서비스이며, 전시회와 무역사절단의 경우 시기별로 대상품목, 사절단규모, 지원사항 및 참가신청방법 등을 코트라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3단계) 지사화 및 수출인큐베이터

- 실질적인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지사화는 현지 무역관에 상주하고 있는 코트라 직원이 거래선 발굴, 바이어 상담, 계약체결 등을 직접 지원 하는 사업임
- 수출인큐베이터는 코트라가 초기 진출기업에 사무공간 및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임.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함

□ 방문활동 사진



▲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관계자들과의 기념 촬영



▲ 코트라 뉴델리무역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⑦ 인도의 관광 자원

□ 간디 박물관

- 위대한 영혼을 뜻하는 마하트마(Mahatma)라는 존칭으로 불리는 인도의 성자, 간디(Gandhi)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이며
- 간디가 암살당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박물관으로 조성되어 간디의 삶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 간디의 전 생애에 걸친 사진과 신문기사들, 간디의 행적을 형상화한 작은 인형들 등이 전시되어 있음.
- 오늘날에도 인도의 모든 화폐에 그의 초상이 그려져 있을 만큼, 간디에 대한 인도인들의 자부심은 실로 대단하며.
- 박물관 맞은편에는 라즈 가트(Raj Ghat)가 자리하며, 간디의 유해를 화장한 곳에 조성된 추모 공원으로, 해마다 수많은 참배객이 다녀가는 장소이며 인도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간디의 마지막을 담은 기록물

□ 파테푸르 시크리

- 무굴제국의 왕 악바르(Akbar) 1세가 세운 도시로 1571년부터 1585년까지 무굴제국의 수도였으며,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 건설은 1569년에 시작되어 1574년경에 마무리 되었음. 악바르 1세는 1571년에 자신의 거처를 이 도시로 옮겼고 도시 명을 페르시아어로 승리라는 뜻의 단어 파테(Fateh)에서 유래한 파테바드(Fatehbad)라 명명 하였음. 훗날 이 도시의 명칭은 오늘날과 같이 '파테푸르 시크리'로 변경되었음. 급수가 원활하지 못해 약 30년 후에 수도가 다시 인근의 아그라(Agra)로 옮겨진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당시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음.
- 악바르는 무슬림이었지만, 백성들이 자신과 같은 종교를 따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으며, 파테푸르 시크리의 건축에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장식과 기법들이 조화롭게 혼합되어 있음.



▲ 파테푸르 시크리 전경

□ 타지마할

-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자신의 총애하였던 부인 뭇타즈 마할로 알려진 아르주망 바누 배움을 기리기 위하여 무덤 건축을 명하여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동원하여 건설하였으며 그 기간만 22년이 걸린 1654년에 완공되었음.
- 건물 전체가 흰 대리석으로 이루어진 타지마할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완벽한 대칭을 이룬 건축물이며, 중앙 돔을 중심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건물을 보다 환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바깥쪽으로 조금 휘어지게 건축하였음.
- 타지마할은 페르시아, 터키, 인도 및 이슬람의 건축 양식이 잘 조합된 무굴 건축의 가장 훌륭한 예로 평가받고 있음.
- 시설물 관리는 주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과 예산지원으로 관리를 하며 대리석 변색에 따라 복원작업을 하는 등 관광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타지마할 전경

□ 아그라 성

- 1566년 무굴제국의 제3대 황제인 악바르 대제가 견고한 요새로 축조한 것으로, 훗날 샤 자한에 의해 아름다운 궁전으로 재탄생했으며, 무굴제국이 델리로 천도하기 전까지 악바르 대제와 자항기르, 샤 자한이 차례로 이곳에 거주했음.
- 무굴제국 통치자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이 건축물은 입구부터 시선을 압도하는 붉은색 성벽이 인상적으로 건축 당시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고 하며, 붉은 사암으로 지은 성벽의 길이는 2.5km에 달함.
- 아그라 성은 힌두 궁전 건축양식에서 무굴양식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어 힌두교와 이슬람교 문화의 융합을 지향한 것으로 후에 건설된 파테푸르 시크리(Fatehpwr Sikri)의 건축양식과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음.



▲ 아그라 성 전경

□ 인도의 특색 있는 관광 문화 산업 (라자스탄주를 중심으로)

- 인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약 890만명으로 2015년도 대비 10%이상 증가되었 2014년 모디 총리가 취임하면서 관광 발전을 우선시 하는 정책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인도의 대표 관광지역인 라자스탄주 역시 2016년 430만명이 방문하는 등 인도 방문객 절반정도는 이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관광산업의 핵심 지역이다.
 - 최초의 계획도시인 자이푸르의 시티펠리스, 암베르성, 하와마할 등과 더불어 독특한 축제들이 라자스탄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궁전열차 운행 : 과거 왕들이 타고 다닌 기차를 이용, 7박8일 코스, 8개 지역을 관광하는 상품
- 자이푸르 문학 축제 : 유명한 작가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 문학 축제
- 자이푸르 출범 기념 축제 : 3월경, 7일간 부탄왕 초청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 자이푸르 국제 축제 : 라자스탄 전 지역의 악사들과 춤꾼들, 장인들이 모여 자신들의 공연을 펼치는 축제
- 푸쉬가르 낙타 축제 : 자라스탄 주의 작은 마을 푸쉬가르에서는 해마다 가을에 낙타축제 개최, 사막에 사는 유목민들이 낙타를 거래하는 행사

- 특히, 자이푸르 문학 축제(Jaipur Literature Festival)는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문학쇼’로 인정받으며, 각국에서 20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이다
 - 여행자, 문학 애호가, 저자 등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글로벌 행사이며

- 매번 빈자리가 없이 매워질 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들은 서서 봐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 이 축제가 흥행에 성공하는 이유는 전 행사가 무료이며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쟁쟁한 저자들이 초대되고 있으며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이 초대된다는 것도 매력이다.

< ※자이푸르 문학 축제 >

- 개최시기 : 매년 1월경 5일간(2006년~ 현재)
- 개최장소 : 디기이 팰리스 호텔 및 디기이 궁전 가든
- 참 가 자 : 노벨상 및 맨부커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작가 및 유명인 300여명
 - 2012년도에는 오프라윈프리, 살먼루시디 참가
- 주요내용 : 참가자 등이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 교환

- 세종시에서도 세종대왕 · 한글 · 행정수도 · 김종서 장군 등 대표적 이미지를 이용한 독특한 축제 개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처럼 한글을 디자인화하고 한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다채로움 등을 극대화하여 만들어지는 문학작품 등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까지의 축제는 시각적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한글의 표현력을 활용하여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고 왔으며
 - 그래서 이제는 한글을 이용한 시 소설 등 문학작품과 영화시나리오, 가사 등과 같은 문화예술작품 들의 장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
- 이러한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세종시가 한글의 도시임을 전세계에 알리고 문학과 예술의 메카로서 세종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벤치마킹한 사례들을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와 협의하여 좋은 정책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IT 강국 다운 인재 육성 정책

- 인도는 국가 정책으로 IT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했으며 전국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IT 산업 정책 기획과 벤처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립 등에 따라 IT 인재 공급도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인도 공과대학은 전국에 18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어 인도의 MIT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우수한 IT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 현재는 정부에서 스타트업 인디아(Start-up India) 캠페인을 실시하고, IT 보급 정책인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를 통해 IT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IT 인재 양성은 더욱 가속화 시킬 예정에 있다.
- 또한, 인도가 IT 강국으로 발전된 비결을 보면 첫째, 인건비가 저렴하며, 둘째, 인도인 대다수가 영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셋째, 인도에서 역사적으로 수학이 발달한 나라로 기본 수학능력이 뛰어나며, 넷째,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간 인도인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되는 것이 비결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IT 강국으로 불리워지고 있기는 하나 해외시장 보다는 국내시장에 비중이 더 크고, 통신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분야의 육성이 필요하고 있으나
- 관련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이·공계 기피현상이 있을 정도로 이·공대 이탈 현상이 심하며, 수학, 물리, 화학 등 공과계열 기초학문을 어려워하는 것도 전문성을 갖춘 기술자를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그리고, 인도와 같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학업방식은 대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 따라서 학생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 마련과 다양한 분야에서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당분야에 적합한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계화를 위하여 기초학문과 더불어 영어 등의 외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도정보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예로 우리시 인재육성재단을 활용하여 현재 부족한 인력인 조사원 양성을 위해 통계 및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여 육성하고 이를 우리시나 중앙정부에서 활용하는 등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 이것이 행정도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며 인도정부센터를 통해 배워온 아이디어이다.
- 그리고 우리시는 앞으로 대학을 유치하여야 하며, 특히 이공계 대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세종시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여
 - 육성한 인재를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안 역시 대학과 고민해 나가야 한다.
- 이처럼 이공계 대학과 인재육성재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은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하나의 육성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 인도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공격적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 경제성장의 핵심정책으로 Make in India 캠페인을 전개하며,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며, 저렴한 인건비와 무궁무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 2016년도에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464억 달러이며 2015년 대비 18%가 증가되는 등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는 등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한국전용공단을 구축하여 한국 기업 유치를 하였으나 현재 입주한 기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한편으로는 외국기업의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 첫째, 부유층들의 시장개방과 외국자본에 대한 두려움, 둘째, 행정서비스의 불투명, 셋째, 공업용수 및 전력시설 등의 인프라 부족에 따른 2중투자의 문제, 넷째, 유통분야 등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일부업종에 대한 외국기업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 혹은 세종시에서는 우수한 인력,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완벽한 산업기반시설 확보, 투명한 행정체계를 내세운 입주과정의 공정성을 들 수 있다.

- 입주기업에 대한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업입장에서 세종 시에서 제반비용 이외에는 특별히 추가되는 예산이 없는 예측 가능한 재정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우리의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외국인 투자 지원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3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입지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가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그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할 때의 임대료 감면율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할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도로·용수·전력시설 등 투자기업 사업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일괄민원 처리 등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에도 현재 세종시에서는 출범(2017. 7. 1) 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들과의 면담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원하거나 선호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인도의 ‘make in india’ 정책 등을 참고하여 관련 정책 및 규정 등을 정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볼 때 완벽한 기업 입주 환경을 제시한다면 좋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인도 IT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해 코트라 뉴델리무역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자설명회, 전시회 등 개최하고, 투자인력의 현지 근무 등 투자협력의 원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과거와 미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 인구 13억명의 거대 도시 인도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현실에서 그대로 담고 있는 나라이다.
- 인도 특유의 슬로우 라이프 속에서 세계 최첨단의 IT 산업을 꽃피우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 노동의 시간보다는 여유로움속에서 충분한 사색과 고민을 기반으로 하는 집중도 높은 업무패턴이 지금의 IT 강국을 만든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 그와 같은 삶에 태도는 인도의 교육환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인도의 각 주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인구 400만명의 도시인 자이푸르에서는 국립학교만 10,000여개교에 달하고, 8학년(14세)까지의 의무교육과 12학년까지의 무상교육이고, 더욱더 특이할만한 사항은 군대를 모병제로 하는 현실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18세에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젊은 도시이자 국가이다.
- 역사와 문화가 오롯이 보존되어 있으며, 국민 절대다수가 종교를 갖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종교와 그에 따른 높은 수준의 윤리 도덕적인 삶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채식주의자가 생활하는 것이며 도시 전체에 종교와 맑은 영혼에 깃든 삶을 중시하며 살아간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의 축적이 편중되는 사회적인 문제와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 또한 공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 이중 자이푸르는 핑크시티라고도 불리워지며 지금으로부터 291년 전에 설계되고 건축된 도시로 외부로 부터의 방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9개의 각기 다른 블록과 성문을 갖추고 있으며, 거리마다 특화시킨 상점들 또한 과거 인도인들의 높은 도시 설계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 이 특화거리는 도시 자체적인 소비활동과 상거래만으로는 자족 기능을 갖추기에 충분한 재정여건 확보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규모 특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인근 지역에서의 교역을 흡수함으로써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자족 도시의 중요한 성장엔진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상업시설과 주거공간의 적절한 배치, 도로옆의 자연녹지공원조성, 감각적이고 예술적인 건축물의 수려함은 인도 특유의 에너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례이다.
- 끝으로 인도는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과 도시 생활에 대한 높은 이해도, 지속가능한 도시의 속성을 매우 훌륭하게 실행한 사례이며, 인도인들이 IT 뿐만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